경계를 흘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22대 총여학생회 〈speak-out〉

앵무조개 네트워크

speak-out@yonsei.ac.kr

앵무조개 네트워크

2010 여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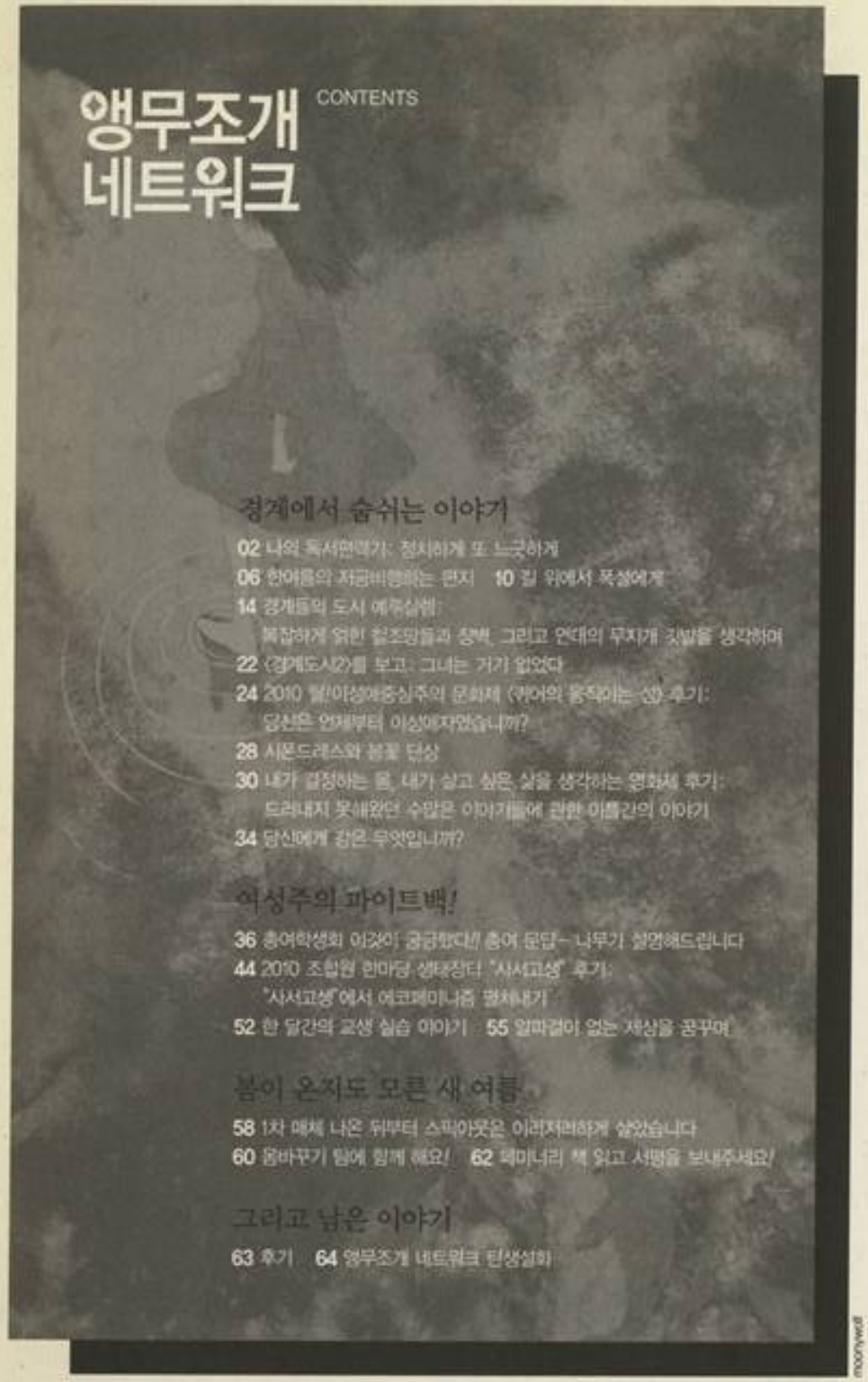
hata atsuko

에서 숨쉬는 이야기 나의 도서반납기: 정치하게 또 느긋하게 / 한
의 저공비행하는 편지 / 길 위에서 목살에게 여성주의 파이트백!
학생회 이것이 궁금했다면 총여 모집- 나무가 설명해드립니다 /
조합원 한마음 생태장터 "시서고생" 후기: "시서고생"에서 에고
노래 명곡투기: 봄이 온지도 모른 새 여름 1차 매체 나온 뒤부터
이모든 이야기하게 설입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

경계를 흘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22대 총여학생회 「speak-out」

앵무조개 네트워크

CONTENTS



경계에서 숨쉬는 이야기

02 나의 독서편력기: 정치하게 또 느긋하게
06 한여름의 자금비행하는 편지 10 길 위에서 목생에게
14 경계들의 도시 예루살렘:
복잡하게 얽힌 칠조망들과 장벽, 그리고 연대의 무지개 깃발을 생각하며
22 〈경계도시2〉를 보고: 그녀는 거기 없었다
24 2010 열!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 〈케어의 윤리와는 선〉 후기:
당신은 언제부터 이성애자였습니까?
28 시몬드레스와 봉꽃 단상
30 내가 결정하는 몸,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생각하는 영화제 후기:
드러내지 못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에 관한 이틀간의 이야기
34 당신에게 감은 무엇입니까?

여성주의 파이트백!

36 총여학생회 이것이 궁금했다!! 총여 문답 – 나무기 질문해드립니다
44 2010 조합원 한마당 생존장터 "사서고생" 후기:
"사서고생"에서 에코페미니즘 멸치볶기
52 한 달간의 교생 실습 이야기 55 일하겁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남이 온지도 모른 새 여름

58 1차 매체 나온 뒤부터 스피아못은 이러저러하게 살았습니다
60 몸바꾸기 팀에 함께 해요! 62 페미니즘 책 읽고 서평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남은 이야기

63 후기 64 앵무조개 네트워크 탄생설화

Joanna Sieko-Filipowska

나의 독서편력기
: 정치하게 또 느긋하게

간만에 생겨나는 한가한 휴일에 집에서 뒹굴다 못해 몸에서 이끼가 피어오를 것만 같은 순간이면 집 앞 서점으로 나갔다. 서점 문턱을 밟는 초창기에는 여행/취미 부근에서 서성이다가 문학/에세이 부근으로 옮겨가더니 인문/사회 분야로까지 발이 닿았다. 동네 특성상 만화책과 문제집과 영어 동화책의 비중이 높아 내가 찾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서점이니 책은 많았다. 책 제목을 훑고, 꺼내어 뒤적거리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 순간들이 좋았다.

매달 한 권씩 잡지를 사고는 했다. 잡지 속에서 펼쳐지는 색채들이 좋았다. 정제되어있고 연출되어있는 사진들이 좋았다. 내가 찍을 수 없는, 사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서점에서 잡지를 뒤적이다 보면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잡지는 한 두 권 밖에 없었다. 살까 말까 고민하던 잡지까지 도합 두 권을 샀던 날, 1/3정도 들추어보고 땅을 치고 후회했다. 어떤 사람의 사진과 함께 이 사람을 애인으로 삼으면 어떨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걸 보니 이럴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서술되어있었다. 사진과 짤막한 소개글만으로 너무도 쉽게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에 기가 질렸다. 마음이 스산해져 모아둔 잡지를 뒤적이다가 무언가 어색해졌다. 연출된 사진들에서 포르말린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내 살 속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에게서 기쁨을 얻곤 하던 내가 더 이상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잡지를 볼 이유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잡지 대신 시집을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가격도 그럭저럭 비슷하고 한 달 동안 가볍게 데리고 다니며 곱씹어 볼 수 있으니까. 매달 사던 잡지 대신 시집을 안고 돌아오던 날에는 괜시리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릴없는 시간마다 서점을 찾아가던 시절에, 그간 읽어온 책의 목록을 뒤적여 보았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여 목록도 훑어보고, 그 동안 구매한 책들의 목록도 훑어보았다. 앞으로 구매할 책의 목록을 작성해 보았다. 1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었던 신문들의 이름을 되돌아보았다. 서너 개의 신문 이름이 지나갔다. 내가 그렇게 갉아보고 맛보고 받아들였던 글자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의 43%정도는 글자들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글자들이 나를 길러온 것 같았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러면 지금의 나를 글자들이 내가 있는 이곳까지 데려온 걸까? 앞으로의 나 또한 어느 정도는 내가 읽어갈 글자들이 만들어가겠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글자들을 만나게 될까? 아니, 나는 어떤 글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글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들이 나를 움직여 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도록 신기했다. 자음과 모음을 떼어 놓으면 그냥 말 그대로 '문자' 일 뿐인데.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도, 여느 때처럼 서점에 찾아갔다. 쌓여있는 책들을 바라보다가 멀리 갑이 났다. 판매대에 가지런히 누워 있는 모든 책들이 입을 쩍쩍 벌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았다. 이곳에 이렇게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이렇게나 시끄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아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그간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 각각의 표지도, 표지 앞에 감겨있는 유혹적 문구와 찬사들로 가득한 띠 모양 종이도 내 눈에는 '정치적 선동' 으로만 보였다. 어서 빨리 내 말을 들어달라고, 내 말에 귀 기울여 달라고 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나 많은 '정치' 들이 서점을 뒤덮고 있었다니, 충격적이었다. 그 동안은 서점이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 서점이 조용하다는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내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을

뿐.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를 설득하려 기를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서점이 무서워졌다. 내가 이곳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에게 무릎을 꿇지는 않겠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매력적이기도 하다. 특정 입장에 동조하고 행동을 함께 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기도 하니까. 왜인지 내가 너무 줏대 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이 말을 들으면 왼쪽으로 펄럭 저 말을 들으면 오른쪽으로 펄럭펄럭 하는 종잇장 같은 귀를 가진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앞으로는 서점에 하릴없이 터덜터덜 오는 게 아니라, 마음 단단히 먹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하고 와야 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포그라든 마음과 함께 집에 와서 있노라니, 얼마 전에 선물로 보내려던 책 생각이 났다. 가볍게 읽히는 책을 보내주려 했는데, 바로 떠오르는 책이 있었다. 서점에 가서 일분 정도 주저하다가 책을 들고 집에 왔고, 읽은 지 3 년 정도 되었으니 이렇게 만난 김에 다시 한 번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에 책을 펼쳐서 곱게 읽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엄청 정치적이라는 느낌이 밀려와 한숨이 나왔다. 3 년 전에는 그냥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구나 하고 읽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다. 분명 글자들의 조합일 뿐인데 이렇게 사람을 뒤흔들 수 있다니, 그리고 시간에 따라 이렇게나 읽히는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이틀 밤을 고민하다가 결국 보내주었는데, 며칠 뒤에 상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고 해 주었다.

그리고 떠올랐다.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구나. 내가 내 나름의 기준에 따라 분별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구나. 어차피 내가 집어 든 책의 내용이 저자의 의도 그대로 한 번에 온전히 나에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다.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내가 그 책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니 내가 책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는 나에게 달린 문제였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라던 상대의 대답을 막 들었을 때 '그러면 어디가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그 의구심이 풀렸다. 그 책은, 나의 손을 떠나 상대와 관계를 맺었고 상대는 그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다. 나와 그 책의 관계가 상대와 그 책의 관계와 같을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나도 모든 책과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었다. 책의 정치와 나의 정치가 항상 똑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삶은 정치의 연속이고, 나는 나의 정치를 만들면 되는 거였다. 나와 비슷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없을 터였다. 서점에 깔린 수많은 책들도 마찬가지며, 그 책들은 나의 정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온전히 나의 정치가 될 수는 없을 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책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항상 애를 쓰던 나의 모습이 생각났다. 읽다가 내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딘가에 가면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끝까지 참고 읽어야 한다고, 아무리 책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책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달렸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었다. '책님, 저를 가르쳐주세요.' 하고 매달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아, 마음이 가벼워졌다.

서점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정치와 정치적 행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내리는 대부분의 선택은 나의 정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간식으로 과자를 살 때에도, 대화를 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떤 티브이 프로그램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디로 놀러 갈지 고민을 하게 될 때에도 나는 항상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나는 끊임없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것을 '지지한다' 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사건에 대한 입장이든 특정 물건에 대한 선호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정치적인 행위였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정치를 하고 있었다. 그것을 서점에 수없이 깔려 있던 책들을 통해 다시금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제목에 이끌려서 빌려온 단편 소설집을 읽는데, 괴로웠다. '시적 상상력' 이라는 소개 문구에 이끌려서 빌렸는데,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여자들이 갑작스레 찾아와 숭차하며 성관계를 맺고 떠났다' 는 류의 이야기들만 반복되고 있었다. 끔찍했다. 이게 이 사람의 '시적 상상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름대로 유명한 출판사의 '우리 문학선' 이었는데 출판사까지 원망스러워졌다.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며 모든 이야기를 읽을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고통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덮었다. 망설이지 않고 반납했다.

이제는 다시 서점에 잘 간다. 예전처럼 느긋한 마음으로 책을 만나러 간다. 책들이 아무리 자신 집어 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해도 책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잡아먹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설령 내가 집어 든 책을 읽고 마음이 찝찝하면 어디가 찝찝했는지 짚어 보면 되고, 책을 읽다가 책과 내가 공명하는 지점을 만나면 그 지점을 간직하면 된다. 앞으로 새롭게 만날 책과 글자들이 나를 이곳이 아닌 어느 곳으로 데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을 테니 더 이상 초조해 하고 조급해 하지 않기로 했다. 나의 독서는 이렇게 진행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흘러 흘러 갈 것이다.

by 잘 읽고 잘 살기 삶

경계에서
숨 쉬는
이 야 기

한 여름의 저공비행하는 편지

이른 봄 머나먼 섬에서 떼어온 식물이 손톱만한 꽃을 피운다. 폭죽 같다. 나와 동행했던 친구는 그보다 더 머나먼 섬의 제 집으로 돌아가며 식물의 일부의 일부를 떼어갔다. 그 식물은 또 그리 자리를 잡고 꽃을 피운다고 했다. 꽃이라는 시그널의 교류! 꽃이라는 신호탄의 폭발!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나를 납득시킨 것은 식물의 이동이라는 미루어 상상하기 힘든 변화와 꽃이라는 규모로 생장하는 변함없음의 연관성이다. 그렇게 더 머나먼 섬으로 가고 싶다.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는 불박인 장소의 폭력성에 대한 크나큰 대안이다. 장소이지만 여행이기도 하며 시공간이기도 한 그러함.

나는 이러한 자유가 나의 생을 관통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자유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돈의 교환 가치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돈의 수면위에서 재현되는 이미지들 말이다. 여행과 독립과 독립적인 여행과 여행하는 독립에 있어서 "문제는 돈이다", 라고 문제설정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긴 한다……

계다가 지금 내가 눈을 뜨는 곳은 자취방이다. 3년간의 주장 끝에 3개월 전 부터 자취를 시작했다. 휴학생이고 통학시간도 한 시간 남짓인데 나의 가족은 자취를 허가했다. 유하기도 하시지. 어떻게든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맥락은 차치하고, 그래서 내가 자취방이라는 장소로 확보하고자 하는 개인은 무엇이었나를 쓰고 싶었다. 내가 굳이 돈 드는 자취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용도로 돈과 그에 따른 부담의 가용성을, 대학등록금이랄지 특히 여행을 하기 위해서 비축해두는 것을 포기했다. 가사노동을 한다. 성폭력의 위험을 느낀다. (매일 문을 잠그고 나올 때면 돌아왔을 때 고양이가 죽어있지 않을까 라는 공포를 느낀다.) 하염없이 식물들을 바라보는 것은 좋다. 그렇다면 나는 화분 10개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개인이 되기 위해서 자취를 시작했나? 미역국과 된장찌개를 끓일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나의 첫 번째 목표는 여행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혼자 사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는 맞닿아있지만 종국에는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여행하면서 혼자 살 수 있는 방식을 찾지 못하면,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곧 여행이 아니게 되면 말이다. 지금의 나는 장소를 필요로 한다.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성들은 여행자라는 정체성을 저해한다. 임대차계약, 고양이와 식물, 세간들은 그것들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것들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고양이에게는 새 주인을 찾아주는 등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고로 특정한 장소보다는 임시적인 거점을 확보하는 편이, 장소를 대여할 다른 사람을 확보하는 편이 여행자에게는 유리하다. 예를 들어 가족. 그들은 모든 물질적인 절차들을 대신 해결한다. 계약을 맺고 돈을 지불하고, 물건들을 구입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맺음을 대신 행해준다. 나는 방을 비워둔 채로 나갔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겪었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그것은 지리멸렬한 무기력이었고 우울이었다. 애정과 그에 따른 분노, 신뢰와 그에 따른 실망에 이어지는 체념 등 온갖 감정의 순환은 돈이 아니라 나를 지불하는 과정이었다. 식구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지지하는가는 상관이 없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불을 면제해주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치고, 심지어 나의 첫 번째 여행은 이러한 가족의 물질적, 정서적 토대 아래에서 가능했다. 대학생활을 비롯한 생존 자체가 그러해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를 지불하고 나를 얻고 또 나를 지불하고 나를 돌려받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학에 소속되기

경계에서
숨 쉬는
이 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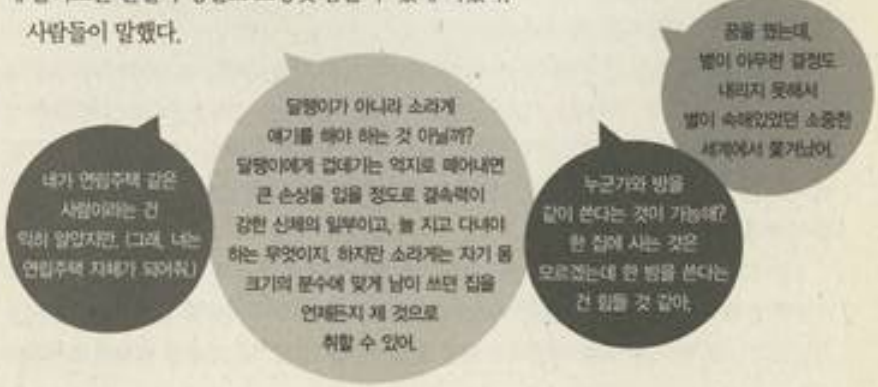
나 직장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의 메카니즘 아닌가. 최근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다. 이유는 단순했는데 단지 복학해서 강의실 안에 서른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장면을 떠올린 것만으로도 심하게 부대꼈다. "내가 선택한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 내가 선택한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일 이상의 행위가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너 그래서는 사회생활 못한다" 는 식구들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 말은 돈을 못 번다는 말로 들린다.

지식보다도 감으로 살아왔다. 가족, 대학, 국가, 언어, 성/별정체성, 나이 등의 경계 안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그리고 나의 촉은 축적된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저 경계가 미묘하게 요동치는 순간들을 나의 감, 나의 촉으로 포착하고 있는 힘껏 나를 밀어 넣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러나 착각했고 경계는 열리지 않았고 덩그러니 경계 위에서 경계를 가득 메우며 거주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경계의 단면은 넓었다. 그럼에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었고 나는 가끔 벼랑으로 떨궈졌다. 그래서?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가. 지금의 사회에서 개인이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신분증명서와도 같은 지불된 '장소'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시공간과의 관계맺음을 이룩할 수 있는가. 공간을 지시대명사가 아닌 다른 용법으로 사용할 때, 예를 들어 바다. 바다를 그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바다의 아름다움이 너무 통속적일까 무서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물쭈물하고 있다.

그래도 일단 경과를 보고하자면 자취를 시작하고 2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서서히 안정되어갔다는 기분이 든다. 집에만 들어가면 허기가 몰려와서 음식들을 집어먹던 습관이 사라지고 끼니를 챙겨먹는 것으로 배가 부르게 되었다. 잠이 들고 잠에서 깨는 순간에 몰려오는 환멸과 경멸도 요령껏 참을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말했다.



'자취' 와 '여행' 이라는 키워드로 뭐에 대해서 쓸 수 있을까, 뭐에 대해서 쓰고 싶은 걸까. 이걸 또 '매체' 에 씀으로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편지를 써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나. 애초에 무언가 전달하거나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러기에는 글 자체나 나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고 덜떨어졌다. 그저 글을 통해서 나를 타개해나갈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하고 싶었던 것뿐? 또 그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나는 글을 쓰다 말고 이런 고민을 하나. 지점에서 지평으로 향하기. 장소에서 공간으로 향하기. 나에서 너에게로 향하기. 굳이 요지를 찾자면 이런 것뿐? 몸이 영혼의 집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바라보아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니까.

'비' 라는 단어에는 비와 비의 내림이 같이 들어있고, '바람' 이라는 단어에는 바람과 바람의 불이 같이 들어있다. 비와 바람은 내림과 불이라는 움직임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 는 "나는 여기에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이쉬고 내쉬고 나서야 서서히 나의 윤곽을 가다듬을 수가 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와 "너는 여기에 있다"라는 두 가지 말이 있다면, 첫 번째, 나와 너는 동의어가 아니다. 두 번째, 여기는 동의어가 아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있다는 어떻지.

태어난 집 혹은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면 감탄한다. 나는 일곱 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매번 도시를 옮겨 다녔고 한 도시에서도 계속해서 동네를 바꿔서 이주해 다녔다. '장소' 를 전환한다는 것은 시공간에 얽힌 기억을 분할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기록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 기록은 일시적이다. 기록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런 태도가 삶의 태도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걸까?

(…… 결국 '돈' 이라는 숨겨진 키워드는 또 다시 내팽개쳤다. 돈 말고 입이나 노동으로 키워드를 잡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네.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삶에서 이 문제에 서광이 비쳤으면 좋겠다.)

by 명쾌하게 졸업하고 싶다 별

경계에서
숨 쉬는
이 야 기

길 위에서 폭설에게

안녕? 잠을 깼더니 물소리, 뻐꾸기소리가 들려서 편지를 씁니다. 시간은 6시, 섬진강을 떠나기로 한 아침이고 강가엔 온통 찔레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길 위에서 맞닥뜨린 [시간]에 대해서 쓰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우리에겐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기까지 또 우리에겐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세상은 온통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저는 자주 노래를 쓰다 지우곤 합니다. 지난번에 갔던 채석강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바위 결결이 나이테처럼 켜켜이 쌓여있고요, 해가 난 구역에는 차르륵 차르륵 따개비 마르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물이 고인 자리에는 붉고 푸른 해조가 겁 없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소유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그 모두가 얼마나 크고 넓고 아름다운지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바다에서 노을이 점차 짙어졌다 열어지는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다를 봤다"는 기록만으로도 충분해서 여타의 수식은 중요치 않은 것입니다. 사무치도록 그 빛깔의 여운이 남을 때, 참지 못하고 몇 줄, 사진 몇 장을 끼적여볼 뿐입니다.

- 채석강 옆에는 채석강 횟집, 파라스 모텔, 야자수가 심어진 리조트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비린물을 뱉어내고 밤에는 가라오케 반주로 들썩이는 건물들은 다닥다닥 담쟁이처럼 바위를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 새만금 홍보관에는 갯벌에 살던 생물군과 방조제 내부구조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 제 5회 용왕제에서는 무당의 발사위가 오색천과 함께 처연하게 펄럭이며 새만금 방조제 완공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 형형색색의 점퍼를 걸친 할머니, 할아버지, 깃발을 든 가이드 무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시 사라집니다.

목포의 눈물과 오래된 무속과 전설이 갯벌 매립을 정당화하는데 거리낌 없이 차용되는 그 해괴한 광경 앞에서, 저는 맥없이 먼지만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비린물을 뱉어내고 밤에는 가라오케 반주로 들썩이는 건물들은 다닥다닥 담쟁이처럼 바위를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분명 채석강, 개화갯벌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에 마땅한 바다와 뭍, 구름과 새들이 있었을 텐데, 갯벌을 끼고 바위에 기대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그들이 만든 작은 공간들과 노래들이 즐비했을텐데 어쩜 그렇게 모든 게 감옥같이 삭제되어 있는지? 관광은 단체버스가 멈춰서는 점과 점으로 이어질 뿐, 공간이 위치한 시간과 장소의 포물선으로부터는 왜 그렇게 훌쩍 벗어나 있는지? 부안 버스기사 아저씨, 농한기라 효도관광 온 할머니, 토건주의 나라에서 별로 행복할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은 왜 새만금 도로를 구경하러 다니는지? 내 혼탁한 눈으로는 가려진 시간을 볼 수가 없어 자주 서러워집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보낸 지난 두 달은 온통 시간에 패배한 기억입니다.

[지역] [공간] [예술]을 보겠다고 [여행]을 시작할 게 3월 말이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후회와 자괴의 밤이 있었겠어요! "지역을 만난다는 게 여행으로 가능한 일일까?" 지은이는 물었고 "불가능에 더 가까운 것 같다"면서도 나는 하행길을 택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예의를 갖춰 이 세상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침묵할 시간, 응시할 시간, 만나고 헤어지고 내일을 꿈꾸기 위한 그 길고 지난한 시간, 시간뿐이 아닐까 요즘은 그런 걸 자주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인상이나 식상한 농담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무력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속의 대화법은 마초나 호모포비아나 자본주의 등등 온갖 추악한 것에 물들어있어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란 곧 가장 위험하게 사귀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의 진실에 가까워지지 못하고 헤어지는 밤이면 몇 가지 변명을 주억거리기도 합니다. "두 밤, 길어야 보름을 한 곳에 머물다 떠나는 일정, 길을 외우고 낯을 익히면 금세 설은 동네로 향하는 버스, 하루 이틀새에 어찌할 바 없는 내 얕은 공부와 비겁함과 그리고 여행자란 기껏해야 임시적인 존재인걸?"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나 일 년이냐 여행자냐 주거민이냐 하는 물리적인 개념만은 아닐걸! 이제는 그 모든 핑계를 치우고 앞으로 두 달 동안 마주할 시간과 장소를 좀 더 공손히 대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보려 합니다.

물드리네 갔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드리네는 미선, 선자, 하린 셋이 사는 집이고, 천연염색을 하는 공방이고, 그걸 가르치는 한라산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공방에서 천연염색 중급반 수업이 한창이라 저희는 잔디밭에서 잡초 뽑는 일을 하였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시작된 하루는 중간고사를 끝내고 돌아온 하린이를 축하하는 막걸리 파티로 이어져 결국 길이 모두 어두워진 밤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경계에서

숨 쉬는

이 야 기

일다(www.ildaro.com)에서 기사를 읽다가 무작정 물드리네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것은 다음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7명 여자들이 '늙으면 모여서 같이 살자' 고 얘기하다가 각자 돈을 모아 산 땅에 2명의 멤버가 먼저 둥지를 틀고 〈천연염색공방 물드리네〉를 열었다." 그 약속이 낙천리 언덕에서 실현되기까지는 10년이 필요했다고 그러더군요. 언젠가 같이 살자던 막연한 희망은 매년 12월 31일의 모임과 제주 여민회의 역사와 맞물려 구름처럼 부풀어 올랐다고. 어느 날 싼 땅이 있길래 덜컥 매입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르르르 장마가 되어 터지게 되었다고.

이후의 얘기도 있습니다. 할머니 살던 옛집을 부시기 싫어서 여기 저기 고치기만 하다가 결국 몇 달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답니다. 처음 3년간은 모든 게 너무 힘들어 "여기다 불태우고 싶었어. 방법도 다 생각해놨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알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태우고 싶었어!" 지금도 목이 쉴 때까지 싸우지만 그렇게 7년이 흘렀고 하린이는 이모(선자)가 꽃했던 옷미래의 노래를 들어주며 엄마와 이모는 하린이 몰래 담배를 태우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문제는 닭장이었습니다. 닭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 앓아누운 것입니다. 게다가 닭이 달걀만 낳으면 산뱀이 나타나 설치는 것이었습니다. 선자는 뱀을 끔찍이 무서워하며, 다른 닭들이 모이를 모두 먹어치우는 통에 앓아누운 닭은 곧 굶어죽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선, 선자, 하린은 모두 닭 잡는 법을 모르고, 주변에도 마땅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사태를 해쳐나가기 위한 방안이 오래도록 논의되었고 몇 통의 전화와 투닥거림 끝에 토종닭을 키우고 싶어 하던 친구에게 닭을 모두 들려 보내자는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친구가 물드리네에 가고 싶다고 보낸 메일을 두고도, 이렇게 찾아오는 여행자들을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일지,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을지 그런 것을 한참 고민했다 그랬습니다.

일상에 내려온 낯은 질문을 붙잡고 씻은 이야기하고 싸우고 아웅다웅 살부비며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잘 되는 공동체가, 예술이 흥하는 공동체가 결국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 그랬나요? 총여실에서 종종 달콤한 화두가 되곤 하던 나중에 나랑 같이 살자, 그럼 너가 설거지하고 너는 빵을 굽고 저 청소 안 하는 빈둥이는 어떻게 처리하지, 질리지 않던 프로포즈들도 떠올랐습니다. 한참 막걸리를 마시다 비가 그친 마당으로 나갔

습니다. 언못가에 소담한 언덕이 놓여있었습니다. 언젠가 물드리네 콘서트를 열고 싶어서 한삽 한삽 쌓았다는 그 무대에는 흙을 모두 뒤덮을 정도로 잔디가 자라있었습니다. "모모의 원형극장같지?" 핀조명 두 개를 켜니 주변은 온통 까맣고 맹꽁이 소리만 들려서 그 위에 앉아 노래하는 기분은 술 취한 가운데 환상적이었습니다. 쉽게 미루지 않는 사소한 일과들, 잦은 다툼과 무른 화해, 그러나 녹록치 않은 일과 중에도 알뜰하게 밟아가는 로망의 여정, 고노 커피를 내려주는 하린이와 쓴 커피를 마시게 된 미선과 그렇게 쌓인 시간의 흔적들, 그 풍경 속에 앉아있는 내내 입가는 방실방실 왜 그리 신나던지! 나의 미래를 댓대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나는 애타게 찾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먼 곳을 그리워하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최근에 새로 만든 놀이는 누군가를 만났던 시간을 거꾸로 나열해보는 것입니다. 불을 끈 방에 가만히 누워 최후의 기억부터 최초의 순간까지 꼼꼼히 거슬러갑니다. 어두운 천장을 채우는 지난날의 풍부한 우연들, 겁 많았던 인연들, 잊을 수 없는 순간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실실대다 꺽꺽대다 주책을 떱니다. 떠나고만 싶던 신촌은 이제 보니 내 온 몸에 가장 화려한 흔적을 남겨놓았더라고요. 엽서에 적힌 이름들, 가지 못해 억울한 모임, 아직도 답이 없는 고민과 지금 보면 부끄러운 글들, 겨울을 온통 덕어치운 사랑…… 사랑은 여행에서도 어려운 문제라 자주 속상해지곤 합니다.

총여실, 귀가 시간 세미나실 창문과 먼지 낀 노을 그런 것이 자주 생각납니다. 비탈진 세상에서 외로이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프진 않을지 그런 게 걱정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리운 사람들 모두 여전히 아름답기를!
대책 없는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봄에도 여름에도
소다수처럼 즐거웁기를! 바랍니다.
남은 이야기는 얼굴을 보고 마저 해요. 많이 보고 싶어요.
○○○○○○○○ 그럼 안녕!

by 파니

경계에서
숨 쉬는
이 야 기

제12회 여성영화제 후기 〈성스러운 도시〉를 보고

경계들의 도시 예루살렘

: 복잡하게 얽힌 철조망들과 장벽, 그리고 연대의 무지개 깃발을 생각하며

프롤로그 •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 아마 예루살렘 하면 십자군전쟁이나 성지 같은 종교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것이다. 아니면 언일 미디어에서 보여주듯이 종교분쟁과 전쟁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성스러운 도시〉라는 영화는 21세기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루살렘의 게이바를 배경으로 치밀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 영화의 원제는 〈The city of borders〉 즉 경계들의 도시라는 뜻이다.[1] 이 영화에는 제목이 뜻하는 것처럼 경계와 장벽들이 그려내는 수많은 단면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 장벽이라는 '우리'와 '그들'의 경계 그리고… 스케치북

이스라엘에는 거대한 장벽이 나라를 관통하며 나누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구와 이스라엘을 나누는 거대한 장벽은 국경도 담장도 아니다. 이 장벽은 팔레스타인의 테러로부터 이스라엘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의해 만들어졌다.[2] 그렇다면 이 장벽은 도대체 무엇일까. 높다란 벽으로 '우리'와 '그들'을 분리시켜 안전하고자 하는 방어인가? 분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공포심의 발로인가? 경계를 확고히 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노력인가? 장벽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웃 도시에 가는 것도 검문소들과 장벽을 통과해야 하는 일상의 통제에 무력하게 노출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장벽을 보면서 팔레스타인(혹은 아랍이라는 추상적으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적대민족)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지속적으로 내면화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장벽은 기괴한 모순의 흉터처럼 넘어설 수 없는 경계가 되어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이분법적인 폭력과 증오를 사람들이 내면화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장벽은 건드릴 수 없는 성스러운 성지마냥 이스라엘의 다양한 경계들의 상징적인 표상이 되어 거대한 장벽은 영화를 보는 내내 나의 눈에 남았다.

영화의 주인공 중 한명인 사미라는 이 장벽에 붙어있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포스터와 낙서들을 가리키며 "사람들의 대립의 감정과 갈등과 분노를 이 거대한 벽에 표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정말로 그 '벽면'의 글과 그림들만으로도 모든 이야

❶ 이 영화의 원제를 직역하면 〈경계들의 도시〉가 됨에도 〈성스러운 도시〉로 제목을 정한 이유는 재미있었다. 한국에 〈경계 도시〉라는 영화가 이미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계 도시〉라는 영화를 먼저 본 뒤, 이 영화를 함께 떠올리며 보았다.

❷ 이 장벽으로 이스라엘정부는 이스라엘의 땅을 팔레스타인지구와 확실히 분리시킴과 동시에 그 장벽으로 둘러싸인 팔레스타인 지구 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군대와 관문소들로 통제하고 있다. 또한 팔레스타인 지구인 웨스트뱅크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세워 계속 팔레스타인지구의 점령을 정당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퀴어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유대교정통주의자들의 시위

사미라와 라빗

기들을 풀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나도 영화를 보다가 따라 웃어버렸다. 팔레스타인의 테러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의 거대한 장벽에 '우리는 테러범이 아니다' 라는 휘갈겨 쓴 낙서는 재미있었다. '이스라엘인/팔레스타인인은 게이다' 이렇게 갈등관계에 있는 두 민족이 서로를 비하하기 위해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는 글도 있었다. 그리고 '퀴어퍼레이드!', '호모는 짐승이다' 등등 퀴어퍼레이드가 예루살렘에서 열림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그를 혐오하는 비난의 글들도 장벽 구석구석에 있었다. 정말 이 경계와 대립의 상징인 장벽이 거대한 스케치북이 되어 생각을 표출하는 좋은 장소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6색 무지개, 5명의 퀴어, 4가지 이야기

영화의 내용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5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예루살렘 유일의 게이바 '슈샨'의 주인이자 최초의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시의원인 유태인 사르 네타넬, 팔레스타인계[3] 이스라엘인 간호사 사미라, 그리고 그와 같은 병원의 의사 유태인 이스라엘인 라빗,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스라엘 정착촌[4]에서 사는 이스라엘인 아담, 그리고 팔레스타인지구의 라말라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 루디. 민족, 인종, 종교, 사는 곳, 생각도 다른 이 주인공들의 소개만으로도 다양한 사람들과 경계가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일면 보여주는 듯했다.

불안으로 세워진 장벽 – '정상' '당위' '순수' '원리'

네타넬은 유태인 이스라엘인으로,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며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자 여러 사안에 연대하려는 활발한 정치가이다. 유대교 정통주의자들이 강성인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커밍아웃한 시의원으로서 초 정통파 예루살렘 시장과 그 주변 사람들과 맞붙는 장면은 거의 시장통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또, 공개된 정치가라는 입장으로 네타넬이 매일같이 시달리는 무시무시한 호모포비아적 협박도 보았다. 그 협박과 비난이라는 것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혐오와 폭력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한편, 그렇게 여과 없는 폭력을 항상 마주치는 네타넬의 심정은 어떠할까 상상하기도 힘들었다. 네타넬에게 쏟아지는 협박 전화와 편지들을 보면서 '무엇이 그리도 불안하고 무서우면 그렇게 그들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잘라내고 억압하려고 할까' 라는 의문도 들었다. 유태인의 나라, 신생국가, 끊임없이 국토에 대한 그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그들의 순수한 정체성을 주장해야 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유태인이 아닌 이스라엘국민이나 유태인인 팔레스타인인, 그들의 종교적 원칙과 맞지 않는 비이성애자들, 단일하지 않은 자국 정체성들은 모두 이스라엘 정체성과 정당성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배제와 공격, 통제로 자신들의 정당성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이처럼 영화 내내 치열한 분쟁 속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입증해야하는 권력 주체들의 불안과 강박을 볼 수 있었다.

유일하지 않은 경계, 또 다른 폭력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것 외에 네타넬은 비이성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나 민족, 종교에 관계없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게이바인 '슈샨'을 예루살렘에 만들었다. '슈샨'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는 기치아래 평화를 외치며 다양한 종교, 인종,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즐거움과 정치적 신념을 풀어내는 곳이 되었다. 물론 누구나 예상하듯이 그런 장이 만들어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슈샨은 익명의 테러에 시달려야했으며 퀴어퍼레이드 때에는 퀴어퍼레이드에 대항하기 위해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가 연합하여 反퀴어퍼레이드 시위를 하여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종교분쟁으로만 알려진 이 지역에서 사실은 다양한 경계와 충돌지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지점이었다. 성소수자 이슈에 있어 전혀 함께 할 수 없이 보였던 다른 종교들이 연합했다는 점이 놀랍기도 하면서 그 장면을 보는 것이 참 희극적이었다.

경계 안의 경계, 경계의 그물 – 횡단하고, 중단하고, 둘러싸는 경계들이 서로를 얽고 휘감아, 하나를 드러내자니 다른 하나가 감겨있고, 하나를 물어내자니 또 다른 것이…

퀴어 혹은 성소수자라는 지점에서 '정상성'이라는 권력의 허상과 폭력성을 느끼고,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네타넬의 목표였고, 슈샨에서 그러한 연대성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러 경계들은 건재하게 사람들과 삶들을 나누고 분열시

● 이스라엘에 전쟁중에 다른 나라나 웨스트뱅크나 가지지구로 피난하지 않거나 못한 팔레스안계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스라엘 전체 10%정도 된다. 이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들은 국적은 이스라엘이지만 팔레스타인계라는 소수자의 위치에 있다.
● 보통은 정착촌으로 부른다. 이스라엘 지구외에 팔레스타인 지구에 생긴 이스라엘인 정착촌을 말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지구를 불법적으로 점령하여 그곳에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이스라엘인을 이주시키고 정착시킨 것을 다른 정착형태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면서, 점령촌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키고 있었다. 국제적인 퀴어퍼레이드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되었지만, 분쟁지역이라는 한계로 서예루살렘에서만 퍼레이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국제퀴어퍼레이드라는 명칭답게 세계 각국의 참가단이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정작 차로 5분거리인 팔레스타인 지구에서는 분리장벽과 검문소로 인해 참가하러 오지 못하는 현실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연대를 퀴어퍼레이드에서 풀어내고자 하는 노력은 무산되고 말았다.

분리장벽으로 둘러쌓인 웨스트뱅크

서안지구와가자지구지

슈산에서 드랙쇼를 했던 부디는 쇼를 하면서 장난스럽게 "진짜 평화와 공존에 대해 아무도 몰라. 게이와 레즈비언 빼고,"라고 외쳤다. 슈샨은 민족, 인종, 성정체성을 초월하여 평화적으로 즐겁게 어울리는 장소가 되기도 했지만, 종교, 민족, 성정체성, 젠더라는 수많은 경계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의식 속에 건재했으며, 경계들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쉽게 풀리지 않기도 했다. 사미라와 라빗 커플의 이야기에서 퀴어안의 또 다른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볼 수 있었다. 유태인 라빗의 어머니는 딸이 여자와 사귄다는 것보다 팔레스타인계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더 충격적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촉망받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딸이 비이성애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딸의 팔레스타인계 애인의 탓으로 돌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라빗이 처음에 사미라의 대쉬를 받고 든 생각을 말하는 장면이 있었다. "나는 이스라엘 군복무도 마친 여성이고, 의사이고, 신앙심 깊은 유태인이고…" 이렇게 팔레스타인계와 사귀는 것에 대해 망설였던 사실을 말할 때, 경계안의 경계의 촘촘한 그물을 본 느낌이었다.

사미라와 라빗은 함께 퀴어퍼레이드에 나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같이 손잡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반대 시위에 참여하며 알콩달콩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진보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커플 안에서도 미묘한 긴장과 경계들은 남아있었다. 사미라는 라빗의 레즈비언 친구들과 함께 유태교의 안식일 의식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그 안에서도 라빗 친구들은 팔레스타인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거나 그녀가 팔레스타인계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기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TV방송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쟁점을 놓고 사미라와 라빗이 토론하는 장면에서도 그 둘의 간극을 볼 수 있었다. 민주적 이스라엘을 주장하는 것은 유태인이 아닌 이스라엘인의 목소리를 평등하게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유태인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건국이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 중이다. 그에 대해 사미라는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인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을 역설하지만, 라빗은 그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퀴어 퍼레이드에서 아담과 네타넬의 다른 생각의 지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네타넬은 퀴어퍼레이드에서 모든 차별에 대항하는 이야기들이 서로 이어져있는 문제이고, 함께 풀어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점령을 반대를 퍼레이드에서 함께 외치지만, 아담은 그것이 퀴어퍼레이드와 상관이 없으며 논의를 흐린다고 생각하여 두 사람이 논쟁을 한 것이다. 인상적인 장면은 아담이 퍼레이드에서 한 채식주의자의 육식비판 피켓을 든 것을 보고 화를 내는 장면이었다. 아담은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혐오범죄에 노출된 후, 진보정당에 가입했지만 다른 차별과 경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는 스스로 종교가 없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인의 특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정부의 논리에 맞는 편견을 그대로 내면화 하고 있었다. 일례로 그는 정착촌에 살고 있으며, 아랍인들이 호전적이며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정착촌이나 분리장벽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감독과의 대화에서 감독이 지적했듯이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아담과 비슷한 태도이며, 아담의 논리는 이스라엘에서 많이 통용되는 논리이기도 하다.

개인의 서사, 드러나는 수많은 단면들

이스라엘 점령 하에 있는 웨스트뱅크 라말라에 살고 있는 부디는 어떤 것을 느끼고 있을까. 영화 초반에 부디가 밤에 몰래 장벽을 넘어 예루살렘 안의 슈산에 가려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우리는 뭐 테러 같은걸 하려는 건 아니구요, 그냥 잠시 즐기려고 가는 거예요."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웨스트뱅크지역과 장벽으로 분리되어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전역에 대한 확고한 소유의지를 이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 간의 이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❶ 웨스트 뱅크지역 안에서도 통행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분리장벽으로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부터 고립되어있는 웨스트뱅크 안에도 이스라엘 군이 지키는 관통도로와 관문소들이 있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분리장벽으로 다른 팔레스타인 지구와 격리되어있는 동예루살렘에서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 것은 관문소와 장벽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일례로 집은 라말라에 있고 일자리가 동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경우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몇시간씩 관문소에서 통행하기가 나길 기다리거나, 이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때도 있다고 한다.

더욱 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9] 부디는 그런 상황에서 허술한 장벽부분을 넘어 종종 슈샨을 방문하곤 하는 것이다. 부디가 살고 있는 라말라의 활발한 도시풍경은 이스라엘의 도시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지만 거기에서도 동성애 혐오는 존재했다. 점령당한 상황과 팔레스타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이슬람 종교성 강화라는 상황속에서, 부디는 친구들과 집안에서 드랙을 하고 춤을 추며 작은 공간에서라도 자유스러움을 느끼거나, 예루살렘의 슈샨을 찾는 것으로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

부디는 슈샨에서 네타넬과 아담, 사미라, 라빗등과 함께 교류하며 친분을 쌓았다. 서로 다른 경계의 위치에 서있어도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곳이 그에게는 슈샨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슈샨 밖에서는 부디는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혐오와 폭력의 전방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였다. 2006년, 슈샨은 결국에 재정적 문제와 주변의 협박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그리고 부디는 호모포비아적 폭력과 전시상황인 고향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희망을 찾아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미국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기대했던 부디는 서구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마주하게 되었다. 모로코에 가보았다며 팔레스타인에 대해 안다는 듯이 말한 한 미국인은 아랍 국가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었다. 비이성애자로 타자화 되는 지점과 팔레스타인 무슬림으로 타자화 되는 지점은 다른 궤도를 그리며 함께 부디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다. 부디 혹은 다른 4명의 주인공들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맥락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5명의 이야기 속에서도 종교, 민족, 성정체성의 수많은 경계들의 단면이 부딪히고 드러나고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고정담론 깨기

민족의 경계, 종교의 경계, 지역의 경계, 성정체성의 경계로 설명한 이 주인공들의 이야기에는 그 경계 안에서 그들이 겪는 일상의 고민들도 담아져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게이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면 두 동생이 자신과 같아질까 괜스레 겁을 먹고 커밍아웃을 두려워했던 역사를 가진 부디,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라빗과 그를 원하지 않는 사미라의 고민, 이 외에도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네타넬, 파트너와 결혼하는 것을 생각하는 아담, 이렇게 개인의 서사들이 경계들과 함께(또는 경계를 넘나들며) 영화에 담겨있었다. 이 지면에서 경계들로 나뉜 단면으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위치시켜 풀어냈지만, 이 개인들의 서사는 민족, 종교, 성별, 성정체성의 경계로 다 설명되진 않는다. 영화에 나오는 장벽과 경계들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관통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 경계자체로 각 개인들의 생각과 삶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으로 이 지역을 생각해야 하는 과제 또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였을 것이다.

을 고정시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영화 속 주인공들의 다양한 내러티브와 삶의 지면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다.

라말라의 재래시장, 그 옆의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무슬림들, 유행하는 팝송, 예루살렘의 성지들과 육색찬란한 퀴어퍼레이드를 영화에 담으면서 감독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궁금해졌다. 언뜻 어울려 떠올리기 힘든 영화의 풍경들은 사실 한 지역의 삶에 자연스레 녹아있는 일상의 풍경이었다. 하루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바에서 춤을 추는 부디의 일상은 '아랍' 이라는 고정이미지로 이 지역의 삶을 판단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균열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으로 이 지역을 생각해야 하는 과제 또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였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단순히 종교 분쟁지역으로 보거나, 팔레스타인-이슬람-전통적/이스라엘-서구적-개방적 이라는 이분법으로 보고 있는 서구중심적 고정관념에 생각의 여지를 남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경계들이 드러나는 지점도 다르고, 한 삶에 여러 경계가 관통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엄청난 장벽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느꼈다.

에필로그 • 유태인, 아랍인, 무슬림,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인, 비이성애자 등등 위의 모든 단어들은 동일어가 없다. 유태인이면서 비이성애자이고, 이스라엘인이면서 무종교자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 민족이면서 무종교이고 이스라엘인이기도 하고, 진보적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면서도 차별과 배제를 내면화하기도 하며, 인종적으로 백인이면서 아랍인이고, 흑인이면서 이스라엘인이기도 하는 이 모든 개인들의 서사를 들으며 그 수많은 경계와 그 모순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화 후에 이 수많은 경계와 벽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머리 아픈 고민이 남았지만, 하나의 서사에 묻혀 다른 서사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남길 수 있었다. 영화를 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상성' 이나 '정당성' 이라는 위치를 위해 경계의 벽을 견고히 하고 타자를 규정하고 배제하는 그 모든 폭력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래본다. 거대한 장벽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담겨서, 경계들의 상징이 되어버린 경계들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평화를 바라는 고민이 찰 수 있기를.

by 나는 어떻고 어떤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율**

〈경계도시2〉를 보고

그 녀 는 거 기 없 었 다

경계도시2를 봤다. 좋은 영화였지만, 영화 주제와는 별개로 영화를 보는 내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영화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정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가장 많은 발언을 하고 많은 선택과 많은 활동을 하지만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인 송두율 교수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내린 선택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주인공보다도 더 중요해 보이는데 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왜 아무도 그것을 궁금해 하지 않는가.

그 사람은 송두율 교수의 부인 정정희 여사였다. 우유부단한 송 교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판단을 하고, 발언을 하고, 행동하는 주체는 그녀였다. 하지만 영화는 여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고 있었다. 단지, '송 교수의 부인'이라는 것 외에 여사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 역시 정 여사를 송 교수와 분리하지 않는다. 독일로 돌아갈 것인가 전향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판단하고 발언하는 것은 송 교수가 아니라 정 여사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송 교수의 생각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정 여사가 송 교수와 동일한 철학을 갖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송 교수는 철학자라고 부르면서 왜 정 여사는 철학자라고 부르지 않는가? 두 사람이 같은 철학을 갖고 있을 때 왜 그것은 남성의 철학이고 여성은 그것을 '이해' 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가? 영화는, 아니 영화가 비추는 이 사회는 정 여사가 북한에 갔는지, 정 여사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정 여사는 이 사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지 않는다. 사법과 언론과 지식인들의 관심은 송 교수만을 향하고 있고, 설사 정 여사가 대답하더라도 그것은 정 여사 본인의 대답이 아닌 송 교수의 대답으로 받아들여진다. 두 사람은 함께 활동하고 함께 생활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 여사 본인의 목소리나 본인의 생각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신기하기도, 어색하기도 했다. 그는 여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단지 남성인 송 교수에게 딸린 부수적인 존재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영화가 끝난 후 감독과 사회자가 들어와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그 때 한 분이 경계도시3을 러브스토리로 찍어볼 생각은 없냐는 질문을 했다. 그 순간 나는 경악하면서, 그 이 도대체 그 영화의 어디에서 '러브'를 느꼈는지 궁금해졌다. 정 여사의 발언과 행동들을,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바탕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닌 송 교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다는 게, 이것이 바로 세상이 흔히 여성을 보는 방식이고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보는 방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무죄판결이 나고 송 교수가 석방되었을 때 변호사였던 김형태씨의 인터뷰 장면이 참 인상 깊었다. 그 표정과 얼굴빛과 목메임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나에게도 생생하게 전달되어서였다. 그런 그 분의 헌신과 돌봄은 아무도 성애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단지 여성과 남성이고 부부라는 이유로 정 여사의 헌신과 돌봄은 성애적으로 해석되었다. 이 얼마나 편협한 시선인가.

그 관객의 질문에 사회자는 자신은 정 여사가 단지 송 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송 교수를 가장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의 사랑을 넘어선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정 여사가 단지 '송 교수를 이해' 한 것이라는 생각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여사의 발언과 행동들은 단지 누군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역사 속에서 나온 본인의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 역시 송 교수와 생을 함께했고 고난을 함께했던 사람이다. 그 모든 게 '송 교수'라는 배경 위에서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 게 참 안타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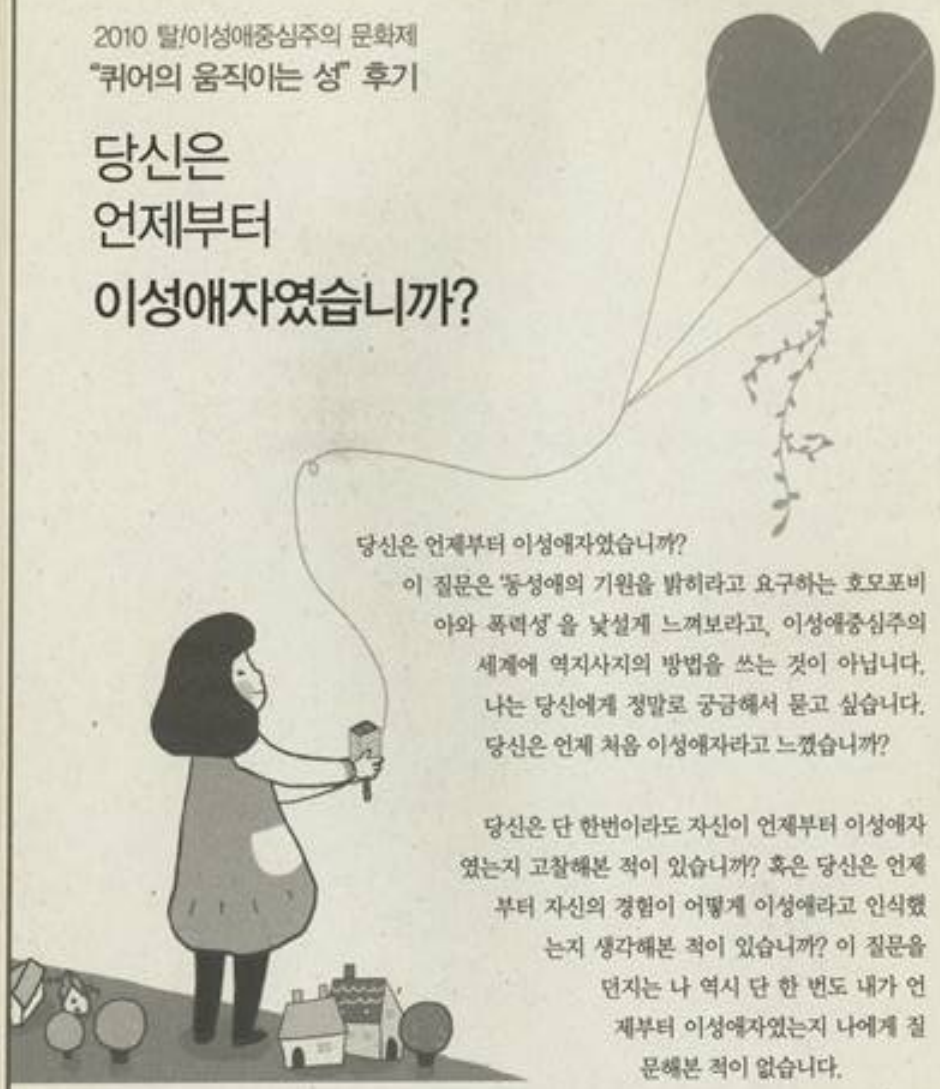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아나키즘 운동을 하던 가네코 후미코가 생각난다. 동지이자 연인이었던 박열과 함께 아나키스트로서 활동하고 일본천황 암살에 대해 논의하다가 재판을 받으면서, 가네코 후미코는 철저하게 박열과 나란히 서 있었고 둘은 함께 있었지만 독립되어 있었다. 그는 박열과의 관계 속에서도, 국가의 재판 속에서도 전혀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가 정정희 여사를 보는 시선과 당시의 일본이 가네코 후미코를 보는 시선이 이토록 달랐던 것은, 정 여사가 가네코 후미코보다 덜 독립적인 사람 이어서일까? 아니면 21세기의 우리나라가 20년대의 제국주의 일본보다도 더 가부장적 이어서일까?

by 가온

경계에서
숨 쉬는
이 야 기

2010 탈!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
"퀴어의 움직이는 성" 후기

당신은 언제부터 이성애자였습니까?



당신은 언제부터 이성애자였습니까?
이 질문은 '동성애의 기원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호모포비아와 폭력성'을 낯설게 느껴보라고, 이성애중심주의 세계에 역지사지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정말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제 처음 이성애자라고 느꼈습니까?

당신은 단 한번이라도 자신이 언제부터 이성애자였는지 고찰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은 언제부터 자신의 경험이 어떻게 이성애라고 인식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나 역시 단 한 번도 내가 언제부터 이성애자였는지 나에게 질문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성애자였을까요.

나는 여태껏 나의 관계맺음을 찬찬히 떠올려보았습니다. 내가 이성애자로 살기 시작한 순간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치원 시절,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이와 짝을 맞추어 입었던 왕자님 공주님 옷. 초등학교 시절, 한 남자애가 나를 몹시 괴롭혔을 때 "저 아이가 너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란다."라고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말씀. 중학교 시절, 너무나 좋아했던 H.O.T, 고등학교 시절 내가 곧잘 따랐던 남자 선생님, 그리고 대학교 새내기 시절, 사랑이라고 오해했던 나의 짧은 첫 연애, 사랑했지만 헤어져야 했던 나의 두 번째 연애.

너무나 친해서 한시도 떨어지기 싫었던 여자 친구들, 지금도 곧잘 만나 술 한 잔 기울이는 나의 소중한 남자 친구들, 너무나 좋아해서 꿈에서까지 만났던 여고시절 나의 절친, 중학교 시절 걷는 모습까지 멋있었던 여자 선생님과 고등학교 시절 칠판에 분필로 세계지도를 단박에 그리던 남자 선생님.

과거를 되돌아본 나는 큰 고민 없이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 이성과 연애를 했던 시절부터 이성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한다고 오해해서, 그래서 철없이 연애를 했는데 어떻게 이성애라는 사랑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시절 나의 추억, 중학교 시절 나의 관계맺음, 그리고 꽁장히 어린 시절 나의 기억을 더듬어보았습니다. 언제나 좋아했던 남자아이가 있으면, 친했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친하게 지냈던 여자친구들을 더 좋아했었지요. 그러나 남자아이를 향한 감정은 연애감정으로, 여자아이를 좋아하던 감정은 우정으로 분류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성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너무나 좋아하는 동성이 있었습니다. 명쾌한 정의를 찾지 못한 나는 어쩌면 나는 꽁장히 어릴 때부터 이성애자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의 첫 이성애적 감수성을 찾기 위해 점점 더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경계에서

숨 쉬는

이 야 기

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성애자였는지 검증하려면 나의 논의는 완전 실패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되짚어 보아도 나의 오랜 이성애자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성애자라고 정의내린 시간 혹은 사건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이성애자였는지 구구절절이 설명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성애자들이 언제부터,동성애자였는지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 설명하는 행위를 모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탈!이성애중심주의적인 감수성으로 나의 성정체성을 고찰해보자' 라고 시작하였으면서 '나는 그래도 이성애자다.' 라는 생각으로 어떤 위안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탈!이성애중심주의를 외치지만, 그리고 퀴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성애중심주의 사회 속 이성애자라는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탈! 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 〈퀴어의 움직이는 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나타났습니다. 문화제를 준비할 때, 나는 일종의 소수자였습니다.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왠지 모두 비이성애정체성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성애자는 한 명도 없고 모두 동성애자로 보였습니다.(그/너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체화하고 있는가와는 무관하게) 그런 분위기에 짓눌려 나는 이성애자로서 나의 삶, 나의 경험, 나의 내러티브를 풀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재미있는 것은 나는 '내가 소수자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오히려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비이성애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소수자였기 때문에 나의 이성애 경험을 말하지 못했으면서 나는 '여태껏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니까 나의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한다' 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제 기간 내내 나에게 '배려하는 태도' 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왠지 이 상황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성애자이지만 동성애를 인정해요, 이성애자는 동성애자를 배려해야 해요, 이성애가 다수지만 동성애는 소수니까 잘 보살펴줘야 해요." 라고 말

하는 호모포비아가 내 안에 이렇게 크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탈이성애중심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사실은 호모포비아 덩어리였다는 것이지요.

호모포비아 덩어리였던 내가 문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은 제법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탈!이성애중심주의를 말할 때 미묘하게 느껴지는 뱃속의 불편함, 그것은 호모포비아가 내 몸 속에서 꿈틀대며 탈!이성애중심주의와 충돌하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는데, 별 생각 없이 살면 불편한 점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을 텐데, 세상이 이성애중심주의로 돌아간다면 그냥 거기에 맞추어 살면 되지 않을까, 탈!이성애중심주의를 하면 오히려 지금 내가 누리는 편안함이 모두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서 내가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지만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단 사람들에게 호모포비아를 가진 이성애자가 탈!이성애중심주의를 말하는 것이 힘들다고 털어놓았더니 그들은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성애자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줘서 알았다고, 일종의 커밍아웃을 한 나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위에서 장황하게 써 놓은 고민이 단박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성정체성보다 나의 현재를 바라봐주었고, 나의 괴로움을 함께 고민해주었습니다. 여태껏 내가 입으로만 말했던 '성정체성은 한 사람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 라는 생각이 그 순간 삶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내가 언제부터 이성애자였을까
다시 한 번 질문한다면,
나는 〈퀴어의 움직이는 성〉을 준비할 때라고 대답 할 것입니다.

나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던, 나의 이성애적 관계맺음의 내러티브를 풀어냈던, 나는 이성애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짧지만 소중했던 시간. 내 안의 호모포비아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서 괴롭고 힘들었지만, 나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풀어나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by 거대한 털북숭이 애벌레가 내 팔 위에 **기린**

경계에서
숨 쉬는
이 야 기

시폰드레스와 봄꽃 단상

하늘하늘한 옷자락에 수놓아진 꽃무늬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돌아보면 봄꽃이 만개해 있던 시절을 옮겨 놓은 듯해서 눈이 시렸다. 따가운 햇살에 빛나던 자글자글한 꽃무늬, 나지막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꽃무늬들에 내 마음에 오만 가지 색의 노이즈가 걸려 있는 듯 했던 나날들. 고개를 들면 봄꽃이, 고개를 숙이면 치맛자락의 꽃들이 무차별적으로 망막에 맺혀 어지러워지던 나날들. 매일매일 마주치고는 하는 한결 같은 복장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김없이 한 바퀴씩 돌아가고는 하는 시계바늘과 병치되고는 했다. 피할 틈 없이 가득한 꽃들 속에 숨이 막힐 것만 같은 나날들이었다. 어디를 보아도 꽃을 피할 길이 없구나 싶었다. 붉디 붉게 타오르는 영산홍에 내 눈도 타버릴 것만 같았다. 학교 오는 길에 지나쳤던 둔치에는 연초록 잎과 철쭉꽃이 뒤섞인 두툼한 관목이 얹혀져 있었다. 거대한 줄무늬 애벌레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봄을 먹고 자란 거대한 애벌레. 봄의 끝자락에서 애벌레는 옷을 갈아 입겠지.

질은 초록으로 물든 이파리들이 보고 싶었다. 질디 질은 푸르름에 눈이 멀어 버리고 싶었다. 나 이렇게 봄의 따가움을 견디어내고 푸르러졌다고 외치는 소리들을 듣고 싶었다. 어차피 쏟아지는 빗방울에 꽃잎들은 맥없이 져 버릴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집에 가는 버스에서 어떤 이가 올라탔다. 시폰 드레스에 가디건을 입고 킬힐을 신은 사람이었다. 언제나처럼 내가 탄 이 버스는 급출발을 시도했고 버스카드를 찍으려던 그 사람은 비틀거렸다. 하루 종일 킬힐을 신고 버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터였고 그렇게 하루치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그 사람은 급출발하는 버스에서 균형을 잃었을 테지. 길거리를 지나치며 보아왔던 높은 구두를 신고 불편한 걸음걸이로 비틀거리거나 종종걸음으로 걷던 사람들이 겹쳐졌다. 아예 굽이 없는 플랫슈즈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굽이 있는 것이 척추 건강에는 낫다지만 굽이 너무 높아도 좋을 건 없다. 신어보면 안다. 킬힐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킬힐에 발이 길들여지려면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날 친구가 시폰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터벅터벅 걸으며 나타났다. 나는 언제나처럼 그렇듯이 '옷이 참 예쁘네.' 라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친구는 대답했다. '응 고마워. 나 배 나왔어.' 자랑스럽게 배를 쓰다듬으면서 거칠 것이 없다는 듯 말하던 너의 모습. '배가 나와서 걱정이야.' 가 아니라 '배가 나왔다.' 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네가 아름다웠다. 어차피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미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또 하나의 규범인 것을. 너는 그 규범으로부터 적어도 나보다는 훨씬 자유로워 보였다. 아! 나의 통념을 무너뜨린 너의 그 대답. 나는 순간 아찔해졌다. 앉아있던 내가 일어서있던 너를 바라보느라 배가되었던 그 아찔함. 유쾌하게 자리잡은 기억. 비틀거리지 않는 너의 모습. 즐거워 보이던 너의 모습. 그래서 좋았다. 그래서 네가 아름다워 보였다. 13년만의 하루 종일 푸르렀다던 하늘만큼이나 네가 아름다워 보였다.

by 꽃타령이 길어졌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삵**

경계에서

숨 쉬는

이 야 기

시술하던 많은 의사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다. 아, 할 말이 없어졌다. 마주하기 싫은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한국 현실과도 충분히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다.

두 번째 날에는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을 상영했다. 친구의 요청으로 임신 중절을 도와주던 오틸리아는 임신 시기를 속인 친구로 인해 원치 않은 일을 겪게 된다. 친구의 시술이 끝난 후 그녀는 부모님 생일 축하 파티에 와달라는 애인의 요구에 파티 장소로 향한다. 그곳에서 만난 애인 부모님의 친구들로부터 오틸리아는 불쾌한 이야기만 잔뜩 듣게 되고, 화가 난 채로 그 장소를 빠져 나온다. 전화를 안 받는 친구 때문에 급하게 호텔에 돌아오니 친구는 아이를 사산한 상태였다. 죽은 아이를 그녀는 친구 대신 다른 곳에 두고 온다. 배가 고프다며 친구는 식당에 가고, 식당에서 그녀는 '다시는 우리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자'라고 친구에게 말한다. 이틀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춥고 건조해 보이는 동유럽의 풍경이 영화를 보는 내내 건조함을 배가시켰다. 영화 내내 오틸리아의 친구는 보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가지도 않으면서 '꼭 좋은 곳에 묻어줘'라고 말한다던가 오틸리아가 끊임없이 전화를 하지만 세상모르고 잠에 빠져든다거나 오틸리아가 나간 사이 기다리지도 않고 배가 고프다며 식당에 가버리거나 하는 것들. 하지만 어쩌면 그건 그녀가 행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고, 오틸리아를 그만큼 믿어서 나온 행동이라고 보아야 하는 걸까. 나는, 그녀의 삶에 그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없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도 '자신 없게' 만들었을까. 전날 상영한 영화보다는 훨씬 덜 극적이지만 그렇기에 더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였다.

상영 후의 자리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낙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현실 자체를 바꾸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일 테지만 나는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낙태에 관한 수도 없이 많은 내러티브들이 잠자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일단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어떻게든 될 터인데, 그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도 함께 차단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계속 최악을 피해 왔을 뿐,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은 극단적 조치들이 취해진 이후에야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 1952년에도, 1974년에도, 1996년에도, 2010년에도 여성 개개인의 삶에서 출산 혹은 낙태와 관련하여 달라진 것은 거의 없어 보였다. 바뀐 것이 있다면 법과 제도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월'에서처럼 우리는 낙태 '찬성' 혹은 '반대'로 갈려서 양 끝에 서 있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찬성 혹은 반대라는 입장에 서고, 그 이유로 '생명권'을 끌어들이는 방식만이 고루하게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편 가르기 식 싸움에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 사회의 삶에 관한 감수성이 너무나도 무디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혼 여성이나 기혼 여성이라는 혼인여부를 떠나 한 여성의 삶에 있어 낙태라는 사안은 손쉽게 여겨지기 힘든 사안이다. 그리고 이 사회는 낙태 사안에 있어서는 정작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모든 문제가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 특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은, 오히려 밀접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도 이야기 하는 것이 힘들었으며 지금도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 여성 개개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낙태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것인지, 표현 자체에 대한 고민도 들었다. 사회를 보면서 선불리 낙태라고 말한 것은 아닌가 싶어 말을 번복하는 일이 잦았던 지라 표현에 대한 고민과 의문도 여전히 내게서 맴돌고 있다. '낙태'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껄끄럽고, 그러면 '임신 중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중절'이라는 표현이 걸리고, '임신 중단'이라고 표현 하는 것이 더 나을까 싶었다. 호명의 문제마저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손쉽게 '낙태'라고 말하고 그만 두어 버리는지? '낙태는 살인입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도 쉽게 규정지어 버릴 수 있는지?

이틀 동안의 영화제를 진행하면서 어렴풋하게나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다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낙태'라는 사안에 관해서는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먼저 시작되어야,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어야 지금보다는 더 편해지지 않을까? 낙태라는 사안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듯이 '찬성 혹은 반대'라던가 '생명에 관한 윤리적, 도덕적 문제'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며, 얼마나 이 사안에 복잡다단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는지 풀어 나가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간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밀접하게 닿아있는 이야기니만큼, 수많은 이야기들이 침묵이라는 한 꺼풀 밑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만큼, 이야기하고 싶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나 힘겹게 혹은 생생하게 살아 있음을, 영화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by 아직도 어려워 어떡해 삶

당신에게 강은 무엇입니까?

선유도 공원으로 가는 무지개다리에서 한강에 줄지어 둥둥 떠 있는 부표들을 보았다. 이런 곳에 양어장이나 양식장이 있을 리도 없고, 수영하라고 레일 설치해둔 것도 아닐 거고, 기웃기웃 살펴보니 '물고기 인공 산란장'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아, 인공 산란장이구나. 끄덕끄덕하면서 걸어가다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친다. 왜, 언제부터, 어쩌다가 강에 물고기 인공 산란장이 설치되어 있는 게 당연하게 되었나.

강에 사는 물고기들은 강에서 산란을 한다. 산란장이 설치되기 전부터, 몇 억 년 동안 그래 왔다. 인류가 탄생하기 전에도, 포유류가 탄생하기 전에도 강은 있었고 물고기도 있었다. 인류는 그 강 속에서 태어났고, 강을 터전으로 살아왔다. 우리 몸의 혈관은 강에서 흘러들어와 잠시 머무르다 돌아가는 강의 시간적인 지류들이다. 강은 흐르며 산을 깎고 평원을 만들고 굽이치며 자갈과 모래를 운반하면서 수없이 많은 생물들을 잉태하고 수없이 많은 생물들의 껍데기를 받아들인다. 강 속과 강 곁에서 생물들은 어류에서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로 분화하고 태어났다 사라짐을 반복하며 지금의 모습에 이르러 왔다. 수억 년을 흘러온 강 속에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지구 역사의 굽이침이 있었다. 땅과 바다가 얼었다 녹고 생물들이 출현하고 멸종하는 것을 강은 묵묵히 지켜보며 흘러왔다.

모든 모래와 자갈이 없어지고 수초와 수초 속에 사는 작은 물고기들과 조개류 새우들도 없어지고,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인공 산란장이 설치되어야만 물고기가 태어날 수 있는 강에서 어떤 생물이 출현할 수 있었을까? 한 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에 연결된 수없이 다양한 종들이 필요하다. 그 종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4대강의 모래를 포크레인으로 퍼 올리고 폭약을 터뜨려 암반을 긁어내면서 지금 인간은 무엇을 깎고 있는가? 콘크리트로 강변을 두르고 길목길목 보를 설치하면서 무엇을 막고 있는가? 이제 한강 외에 다른 강들에도 물고기 인공 산란장이 등장하고 보가 설치되는 곳에는 물고기 인공 이동통로가 생겨난다. 멸종위기의 단양쑥부쟁이를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흰목물떼새와 수리부엉이는 동물원으로, 꾸구리는 양어장으로 옮겨서 키우면서 그들이 살던 곳은 콘크리트를 부어 생태공원과 자전거도로로 만들면 생물종을 보호하면서 4대강을 살리는 것인가? 인간은 강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감히 무엇이 무엇을 살린다고 하는가? 참새야 용을 쪼지 마라. 몸부림에 천지가 뒤집힐까 두렵다.

by 가온

총여학생회 이것이 궁금했다!!

총여 문답 – 나무가 설명해드립니다

다음의 문답은 실제로 선거기간, 활동기간 중 들었던 질문들을 근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총여학생회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자료집과 매체들을 꾸준히 읽어오셨다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총여학생회를 지지하면서도 친구, 가족, 아는 사람 등등으로부터 총여학생회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악악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간간히 나무의 주관이 섞인 주장과 표현이 있는데요, 주관이 없는 글은 없으니까 그냥 고고 하겠습니다.

1 총여학생회와 여학생 교육권

Q 총여학생회는 왜 존재하나요? 학내가 가부장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하하…) 가부장적이라는 게 남자가 다수라거나 남자가 훨씬 파워 있고 빽 있어서 학내 사안을 죄다 쥐고 흔든다– 뭐 이런 개념도 포함되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포괄적인 건데요, 좀 더 풀자면 '백인 중산층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을 '일반/보편 인간'으로 여기는 것을 가부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가부장적인 학내 분위기나 공간 구성, 제도적 구성 속에서 위의 '일반/보편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경험은 없는 셈 쳐집니다(이런걸 '비가시화/유리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봅시다. 외국학생 중국인이 젤 많은데 왜 영어강의는 압박하고 중국어 강의는 안 할까요? 모두가 중산층 이상은 아닌데 등록금은 왜 이렇게나 비쌀까요? 학관은 왜 목발 짚은 사람은 동방 올라가기도 힘들게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을까요? 왜 말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 하면 테러당할까요? 왜 여학생들 기숙사 가는 길 무섭다고 가로등 세워달라고 공문 보냈는데 무시하고 답문 안줄까요? 이런 거지요, 네, 개개인의 삶을 긍정하기 위해, 분명 존재하지만 비가시화되었던 경험들을 드러내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학내에서 합의되었고 그 결과 총여학생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Q 요즘 기사를 보니까 총여학생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총학 산하에 기구가 있는 것과 총여학생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총여는 여학생 총투표에 의해 선출된다는 것이겠네요. 총학생회(이하 총학) 산하에 존재하는 기구들은 대체로 인준을 받는 형태인데요, 사실 여성에게 있어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로 여성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자체가 여성문제인 것이고 삶 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여학생교육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학내사안 중 하나가 여학생교육권인 것이 아니라 여학생의 삶 안에 등록금, 먹고 자는 것, 쉬는 것, 안전, 복지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학생교육권을, 생각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하위항목 중 하나가 아닌 일상적으로 생각해야하는 문제로 적극 가져가고자 총여학생회를 만든 것이지요. 총여학생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학생교육권, 여학생의 삶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인 것입니다. 또한 총여학생회의 경우 여위와 달리 해마다 변하는 의제 속에서도 학내 여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Q 어쨌든 총여학생회는 여성만 위하는 데 아닌가요? "역차별"같아요. 예를 들면 여학생 휴게실 왜 있나요? 남학생 휴게실은 왜 없나요? 먼저 짚어드리자면 역차별이란 단어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기울어진 곳에서 힘을 반대로 가해 되려 반대로 기울어지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현재 사회에서 가부장제 사안에 있어서 역차별은 존재하기 힘듭니다. 가부장제는 너무 오래 존재 해 왔고 그만큼 공고하거든요, 총여학생회가 열심히 떠들어도 지나치게 공고한 가부장제를 조금 낙후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뒤집는 것은 글쎄요– 학내에서만이라도, 50년 뒤에라도 되면 정말 대단한 일이겠네요. 그런데요, 역차별이 문제라면 순차별은 괜찮은 것인가요? 질문하신 분이 생각하시는 평형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학생 휴게실이 처음 생긴 것은 1970년도였는데요, 당시는 여학생의 절대적 수도 적었을 뿐더러 과방/반방 등에서 여성들이 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학내 공간구성에 문제제기해서 생긴 곳이 여학생 휴게실이지요. 당시에 비하면 여학생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여학생들이 과방/반방, 학내 여기저기에서 자거나 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녀가 함께 쉬는 공간이라도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대화가 오간다든가 성의 상품화가 극대화된 소주 포스터 등이 붙어있다든가 치마입고 오면 다리가 어쩌느니 외모평가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여전히 독립적인 여학생 휴게실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한편, 사회가 변하면서 남성들도 과/반의 주류문화에 맞지 않으면 과방/반방에서 쉬는 것이 쉽지 않고 다른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런 상황에 굉장히 공감하지만 그 해결이 여휴를 공용휴게실로 전환한다거나 여휴를 없애는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과방/반방의 이유와 같이 공용휴게실은 여학생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학생 휴게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남학생 휴게실화 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시험기간 새벽에 늘라온에 가보시면 쉽게 느끼실 겁니다) 여휴를 없앤다고 그것이 학생 휴식공간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학내는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절대적 공간이 너무나도 적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도리어 그나마 확보된 휴식공간인 여학생 휴게실마저도 실무공간으로 바꾸겠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 타개책은 남학생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과 총여가 함께 연대하여 절대적 휴식 공간 확보를 학교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총여학생회는 주로 여학생 사업하는데 학생회비는 여학생들에게만 받아야하는 게 아닌가요?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 고지서 항목에 총여학생회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낸 학생회비를 우선 다 모은 뒤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로 배분하는 형식인데요. 각 단위 인원뿐만 아니라 활동의의나 사업필요나 중요성 등등을 고려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배분합니다. 공대학생이 문대에 가서 왜 제 돈 받아서 문대사업 하세요, 라고 물을 순 없는 거겠죠? 국가행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혜자 부담원칙대로 간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 등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2 의제

Q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고 알파걸, 골드미스같은 신조어가 등장하는 요즘 여성상위시대라는 말까지 있는데 이런 시대에서도 여성주의나 (총학생회와는 별개로) 여성주의 총여학생회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 지점정도 짚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분명 사회문화가 변하면서 여성의 교육기회나 사회참여율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 이미 짜여진 틀 안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은 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요즘은 워낙 청년실업이 성별 상관없이 극악하여 예전보단 덜한 것 같지만 불과 며칠 전에도 금녀의 구역이 깨졌다, 무슨 조사기관에 따르니 여성취업률이 남성취업률 보다 높다, 등등의 기사를 본 것 같네요. 저는 4학년이다 보니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 이미 취업한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주변 내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기사들의 갭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취업 때 가장 좋은 스펙은 남성이라는 말에 남녀노소 취업한 사람, 안 한 사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교수님은 사석에서 남학생보다 3배쯤 뛰어나면 여학생 추천해달라는 소릴 기업으로부터 듣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졸업한 한 친구는 비정규직이지만 백수일 순 없어, 과외를 여러 개 뛰는 것보다 못한 돈을 받고 일합니다. 취업에 대한 걱정을 말하면 소위 '학벌이 낮은 학교' 혹은 '지잡대'에 다니는 친구는 연대생도 그런 걱정을 하냐고 말합니다. 너는 학벌도 좋으니까 좋은데 취업해서 알파걸 되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알파걸, 골드미스,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뉴스에 나올 만큼입니다. 사실 뉴스에 나온다는 것이 그만큼 흔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지요. 주변 모두가 연대쯤 다니는 여학생이라면 그런 걱정 없이 모두 정규직에 남녀차이 없는 돈 받으며 일하는 직장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왔지요.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그런 거 없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그럼 충분히 알파걸이 될 수 있고 너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 내 꿈을 펼칠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란 그렇게 쉽진 않지요. 취업률이 높아도 정규직 취업률은 낮고 그 안에서도 남녀에 따라 급여/직급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근로환경을 말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 취급받습니다. 과연 알파걸, 골드미스가 될 수 없는 건 단순히 개인이 게으르기 때문일까요. 알파걸, 골드미스, 여성상위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하든 네가 더 노력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편,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학내 여학생교육권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느껴졌는데요. 여자들도 똑같이 대학교육 받고 똑같이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데도 아직도 여학생교육권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지요. 사실 교육권은 수업권보다는 큰 개념입니다. 초중고 학급인원 줄이기라든가, 지방선거도 하시고 교육감도 선출하셨고 하니 많이들 아시는 무상급식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된 수업을 들을 것이냐, 에서부터 여학생들의 경험이 얼마나 잘 반영된 공간으로 학교를 구성할 것인가까지 교육권의 문제로 가져갈 수 있는 거지요.

Q 여성주의 총여라고 하더라도 여성주의는 다양하잖아요. 젠더불평등이 분명 존재하는데 에코페미니즘같은 것보단 여학생들이 더 와 닿는 젠더불평등에 대한 의제, 즉 성정치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확실히 여성주의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성주의 언어로 노동 운동을 하기도 하고 반성폭력 운동을 하기도 하고 생협 운동을 하기도 하고 퀴어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에코페미니즘 운동을 하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다른 이 운동들이 사실 여성주의 언어로 가능한 이유는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인 중산층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을 '일반/보편 인간'으로, 정상으로 여기고 그 외의 범주를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주변화(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이죠. 비주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타자화(나랑은 전혀 관련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외따로 존재하거나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시켜버리는 가부장제에 문제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위의 다양한 운동들은 시작합니다. 결국 시작점과 지향점이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운동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젠더불평등의 의제를 바로 성정치로 환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정치는 젠더불

평등의 문제보다 좀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젠더'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남녀불평등 = 젠더불평등이 아닌 이유도 같은 맥락이지요. '남녀평등', '양성평등'이란 단어가 갖는 한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과연 누구를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성의 몸에 한정되는 말인가요? 아님 여성의 역할? 아님 사회 속 여성의 위치? 간성이나 트랜스 젠더의 문제, 여장문제나 성별분업, 여성 내 계급의 문제 등등 우리는 쉽게 정의내릴 수 없는 수많은 사례들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정치는 반성폭력 운동, 퀴어 운동, 몸바꾸기 운동 모두를 포괄합니다. 이번 총여학생회 〈speak-out〉역시 이 모든 논의를 함께 가져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소수자 담론 / 복지

Q 총여는 소수자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그럼 다수의 요구는 대변하지 않는 건가요? 소수자 운동에만 집중해서 다수를 위한 복지공약은 뒷전인 것이 아닌가요? 좀 '극단적'인거 같아요.

참 많이 듣는 질문이지만 참 잘을 부분이 많은 질문입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소수자를 말할 때의 소수는 절대적 수를 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권력의 차이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의 수는 10%에 불과하지만 권력을 가진 그들은 다수이고 그 외 권력을 가지지 못한 90%의 사람들은 소수자인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다수를 위한 복지는 따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이 다수를 위해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총여의 존재 이유가 '백인 중산층 이성애자 남성' 중심으로 짜여진, 즉 가부장적인 학교에서 그 외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리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왜 가부장적인 복지를 왜 하지 않느냐는 요구는 총여 존재에 모순적인 요구입니다. 예를 들면 총여가 일반적인 메이크업 강의를 해야 할까요? 학기 초에 총여학생회에는 각종 화장품 회사나 여성대상 패션잡지로부터 메이크업 강의를 함께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메이크업 강의는 청순하거나 섹시하거나 어쨌건 사회가 생각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잘 팔리는 소위 '여대생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메이크업 방법은 아닌가요? 그런 메이크업은 따로 강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티비를 틀면 그런 메이크업을 한 사람들은 차고 넘치게 나오고 따라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총여학생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강연을 하는 곳도 많구요. 가부장성을 도리어 공고히 하는 총여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획일적이고 예뻐 보이는 메이크업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경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메이크업- 나의 슬픔을 드러내거나 분노를 드러낼 수 있는 메이크업을 가르쳐주는 강좌는 없을까요? 그런 식으로 좀 더 개인적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복지라면 사업으로 가져갈 것인지 더 고민해볼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지의 정의가 무엇인지, 기존의 가부장적 복지가 아닌 나의 삶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복지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총여는 OT/새터 기간에 생리대 스폰을 받아 배포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학생회에서 혹시 학생이 다칠까봐 상비약을 챙기는건 당연하지만 혹시 생리할까봐 생리대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편이었죠. 그냥 그런 건 개인이 챙겨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학생들은 생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남성 중심적 학생 이미지가 아닐까요? 새터/MT등을 갈 때 구성원 중 월경이 당연한 학생도 있다는 것, 월경을 사회적으로 바라봐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복지사업이었지요. 생리 결석계(월경 공결제)도 같은 맥락이구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이구, 이런 소리하면 총여가 잡아가지"라면서 입 다문다는 소릴 들은 적이 있네요. 그런 식으로 뱉발언이 줄어드는 상황도 참 삶의 질을 높이는 일종의 복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4 공론화 /소통

Q 총여는 기층단위 수렴통로가 없는데 어떻게 의견을 받나요? 기층단위란 표현도 아시고 학생회 체계를 잘 아시는 분인가 봅니다. 확실히 총여학생회는 존재하지만 단과대 여학생회는 신대 외에는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위, 즉 기층단위에서 상위로, 즉 총단위로 의견이 수렴되는 형식을 취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단과대별 여학생회를 만드는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받은 적도 있지요.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부에서 논의도 많았지요.

분명 단과대 여학생회가 존재한다면 좀 더 단과대 가까운 곳에서 각 단과대에 맞는 여성주의를 펼쳐나갈 수 있을 거고 현재처럼 모든 여성문제 사안이 총여학생회로 집중되는 상황보다는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의기구로서의 학생회 체계엔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위에서 상위로 수렴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다양한 개인의 경험 중 특정 사안들이 선택된다는 의미인데요. 이 경우 어떤 것이 선택될지의 문제는 굉장히 미지수고 그 안에서 개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지도 미지수였습니다.

또 다른 고민지점은, 총여학생회는 기존 가부장적 학내 분위기에 문제제기하면서 생겨난 것인데 아예 단과대 여학생회를 따로 만들려는 시도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결국 여성문제는 따로 떨어져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라면 모두 다 생각해야하는 문제이고 그렇게 생각되는 학내 분위기가 충분히 생긴다면 총여학생회는 궁극적으로 사라지

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단과대 내에도 아예 독립적인 여학생회를 만들어 그 기구가 모든 여성문제를 전담해버리면, 여성문제를 그들만 생각하면 되는 전혀 다른 분리된 사안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학내에는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이하 여연자연)'가 존재합니다. 여연자연은 사실 '연성루연(연세대학교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에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반성폭력 의제를 넘어 다양한 여성문제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단위별 참여도 가능하고 개인별 참여도 가능하므로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대체로 여연자연은 총여의 제안으로 첫 소집이 이루어지지만 원하는 누구라도 제안하면 관심 있는 모두가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1학기 때는 OT/새터 때 '반성폭력 자치규약 자료집' 등을 배포하는 등 반성폭력 사안에 힘을 쏟았습니다만 여름방학 때는 여학생 휴게실 개선 팀이 제안된 상태입니다. 여학생 휴게실에 관심 있는 단위나 개인은 총여학생회에 연락주시거나 여연자연 클럽(yeoyeon.cyworld.com)에 가입하셔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네요^^

Q 총여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총여에 다가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먼 것 같아요. 우선 접근은 홈페이지와 메일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해치지 않아요). 오셔서 함께, 앉으면 절대 일어나고 싶지 않다는 총여의 '마魔의 쇼파'도 느껴보시고 이야기도 나누시면 좋겠지요. 총여실엔 먹을 것도 많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이 문답코너도 한 여학생이 메일로 질문한 것을 바탕으로 기획된 코너랍니다~ 어떻게든 피드백 해드립니다ㅇㅅㅇ!(단호!)
한편 총여에는 기본적으로 집행부는 존재하지만 수습위원이 있진 않습니다. 수습이란 표현이 집행부와 그 외 사람들을 위계화 한다는 느낌도 들고 마치 실무만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데요, 대신 기획단원/팀원은 존재합니다. 기획단/팀은 어떤 사업/사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펼쳐내는 장場입니다. 그 안에서는 집행부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대등합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기본적 관계맺음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지요.

5 기타

Q 여성부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여성부는 여성문제를 일상적으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는 기구입니다. 그렇지만 여성부는 페미니스트 집단도 아니고 국가 행정부서 중 하나이므로 당시 정부가 가진 정책방향에 따라 여성문제에 접근하는 각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 접근 각도에 따라 여성부에 대한 총여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크게 불거진 낙태 이슈에 대해서 여성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연결하여 바라보고 출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가져감으로서 사실 여성주체의 목소리를 비가시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지요. 또한 일과 양육을 동시에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퍼플잡의 경우는 일과 양육이 모두 여성에게 전가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문제제기는 없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여성개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부장성을 강화하고 여성주체의 목소리를 없애는 결과를 낳는데 여성부가 악용된다면 여성부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없느니만 못한 부서가 될 것입니다.

Q 총여는 대체 뭘 하나요? 정말 관심 없는 질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해서 이 곳에다는 다 쓸 수가 없네요. 소식지를 참고하세요. 참 한 게 많은데 왜 모른다고 할까요. 2010 탈!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 〈퀴어의 움직이는 성〉 강연에서 루인씨가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규범이다"라고 하신 것이 기억나네요.

Q 왜 남학우를 설득할 생각은 안하나요?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상관없이)합니다. 무얼 설득해야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총여와 총여가 가진 관점에 대한 설명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총여의 사업은 학내의 가부장성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학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딱히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설득/사업의 대상이 다른 건 아닙니다. 차라리 나눈다면 더 가부장적인, 덜 가부장적인 학생으로는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비가시화 되었던 여성이나 타자화 되었던 여러 다른 주체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가부장적 "정상성"의 언어에 익숙해 왔던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끼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예 인식론을 바꿔야하는 것이니까요. 총여에 오시거나 총여가 주체하는 여러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읽어보고 강연도 들어가며 천천히 천천히 "정상"이라고 여겨왔던 경험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문답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총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욱 새록새록 피어났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총여실에 찾아오시거나 메일(speak-out@yonsei.ac.kr)을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ysfem/)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ㅇ' //

by 나무

2010 조합원 한마당
생태장터 "사서고생" 후기

"사서고생"에서 에코페미니즘 펼쳐내기

에코페미니즘 운동 팀&생태장터

3월 31일은 에코페미니즘 운동 팀(이하 에코펨팀)의 첫 모임이었습니다. 각자의 기대를 갖고 총여실에 와 쇼파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불리고 싶은 별명을 나누고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눌 때 세미나, 도시락 모임하기, 공정무역 물품 팔기, 뱃지 만들기, 자전거 타기, 여성농민 공동체 찾아가기, 빈집가기, 옥상텃밭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다양한 이야기들 중 하나가 대동제 때 생태주점을 열 것을 제안하는 것과 조합원 한마당 내에서 생태장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에코펨팀은 대동제 기간에 생태장터 '녹색성장이 싫어서 슈렉의 늪을 지키는 카페'를 열어 여러 가지 생태적 실천을 했는데요. 우선 대동제 때 생태주점을 열 것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생태주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당시의 내용과 함께 대동제 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브로슈어를 제작하였습니다. 제목은 '생태장터로 초대하는 우리의 손짓 – 2010 생태장터백서' 였지요. 제작하면서 생태장터를 통해 에코페미니즘(이하 에코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제게 에코페미니즘 담론은 사실 딱 이해가 되는 담론은 아니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에코펨 공약을 위해 세미나를 하고 유세도 했지만 쉽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은 것이 에코페미니즘은 근대 산업주의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거대한 담론이니까요. 가부장적 산업개발주의는 개발이란 명목 하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분법과 성별분업, 그

리고 그 속에서 가난이 제3세계 약자와 여성에게 전가되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렸지요. 에코페미니즘은 이러한 가부장적 산업개발주의에 문제제기하며 우리의 삶이 결코 다른 사람의 삶 및 자연과 동떨어지지 않고 유기적으로 관계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 하는 담론입니다. 이런 거대한 담론이 쉬울 리가요.

그런 점에서 생태장터는 굉장히 의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거대한 담론이 거대한 담론으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녹아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기회인 것이지요. 생태장터를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학내 자치행사가 얼마나 기존 가부장적 산업개발주의에 종속되어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수많은 접점을 보여주니까요. 그 안에서 어떤 생태적 실천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직접 실천해 본다는 점에서 생태장터는 '생태' 장터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생협이라는 공간

총여는 선거 때 생협공동공약을 제안했던 만큼 초기부터 생협국을 세워 생협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생협국원으로서 겨울방학 때 있던 2번의 생협 간담회, 2월 OT기간에 진행된 새내기 조합원 교육, 4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 모두 참여하고 준비과정을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말 생협이란 단어조차 생소하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생협의 짜릿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합원이 운영자이며 생산자이며 소비자라는, 그래서 조합원이 꿈꾸는 수많은 가능성이 정말로 하나하나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짜릿함! 생협은 한 명 한 명의 조합원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공간입니다. 에코페미니즘이 말하는 가부장적 산업개발주의의 대안이 될 만한, 관계가 보이고 서로의 삶이 보이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이지요. 그 짜릿함. 그 짜릿함을 다들 함께 느낄 수 있다면!

생협 조합원 한마당 기획안을 짤 때는 이런 생각이었다고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다시금 돌아보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코펨팀이, 아니 구체적으로는 제가 생협 조합원 한마당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했던 것은.

'사서고생'의 준비 – 5가지 원칙과 고민의 지점들

에코페미니즘의 의미, 생태장터의 의미, 생협공간의 의미, 이 모두가 어우러진 조합원 한마당 내 생태장터!! – '사서고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사족입니다만 사서고생이란 이름의 탄생비화는 이렇습니다. 생태 주점을 하기로 한 단위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으로 초록리본을 달자고 했었는데요. 초록색 천이 없는 거죠. 동대문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데– 결국 총여실에 있는 아크릴 물감으로 하얀색 천을 염색해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팀원 왈, "아, 정말 우리 사서 고생한다-". 거기서 이름이 나온 겁니다, 네.

돌아와서- 막상 생태장터를 기획하려니 제법 막막해서 무얼 하든 이것만은 지키자고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 하나.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가격책정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
> 하나.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 하나.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하나. 로컬푸드 직거래와 유기농을 원칙으로 한다.(생산자가 보이는, 착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 하나. 모두가 함께하는 장터를 지향한다.(손님과 판매자라는 구분을 떠나서 충분히 서로를 신경 쓰고 충분히 서로와 관계 맺을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이 다섯 가지 원칙 속에서 일은 진행되었습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고민 지점이 참 많았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돌아보니 기존에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우리의 자치활동은 얼마나 비생태적이고 고민할 지점이 많았는지, 그럼에도 전혀 몰랐는지…

당장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메뉴가 달라져야했고 식기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결국 양념이 심하거나 기름이 심한 음식은 세제 없이 설거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제외되었습니다. 생과일주스는 텀블러에 담아주었고 수저50벌은 생협 학생식당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식기의 경우는 그 무게나 보관이나 설거지나 너무 어려워서 1회용은 정말 편리를 위해 탄생한 거 같다, 그것만이 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럼 보관, 설거지할 필요 없게 그릇까지 먹어버릴 수 있음 되잖아? 하며 뻥튀기 그릇이라는 깜찍한 발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뻥튀기 그릇 내에서도 고민의 지점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국내산 쌀이나 국내산 밀로 만든 뻥튀기이면 좋겠다는 맘이 있었던 것이지요. 당장 동네에 있는 큰 뻥튀기 가게에 연락을 했습니다. 농활 가는 곳에서 쌀을 매올테니 뻥튀기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이럴 수가, 쌀 뻥튀기는 아예 기계가 다르고 만드는 방법이 달라서 손바닥보다도 작은 크기로밖에 나오지 않는다더군요. 그럼 국내산 밀을 사서 드리면요? 그것도 안 되는 것이 밀로 만드는 뻥튀기는 큰 공장에서 밀을 반죽한 뒤 다시 쌀알 크기로 만들어서 도매소매로 나가는 것이라더군요. 그 쌀알만한 반죽을 기계에 넣어서 펑! 부풀리는 거구요. 저희가 필요한 수량정도를 위해 공장에서 따로 일을 할 순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국내산 쌀과 국내산 밀로 만든 뻥튀기 먹고 싶다는 맘에서 비롯된 소박한 생태적 실천을 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사회인지요.

로컬푸드 직거래와 유기농 원칙을 지키는데도 고민의 지점은 발생했습니다. 땅을 착취하지 않은 것이었으면 해서 유기농 원칙을 세웠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단지 슈퍼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 중 하나가 아니라 누군가 살면서 돌보고 땀 흘려 키워낸 것이란 것을 보여주고 싶어 로컬푸드 직거래 원칙을 세워 직거래할 수 있는 건 모두 직거래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을 거치더라도('사서고생'에서는 '여성민우회 생협'과 '한살림'을 거쳤습니다) 생산자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들은 전시하고 편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철이 아닌 것은 직거래할 수 없었고 직거래이지만 유기농이 아니거나 유기농이지만 다른 곳을 거쳐야만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는 가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토마토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이도 수소문 끝에 유기농 직거래를 했지요)

위의 두 가지가 그래도 준비 초반에 고민이었다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뒤통수를 때렸던 것은 식수의 문제였습니다. 당장 음식을 만드는데도 물이 필요했고 설거지를 위해서도 물이 필요했지만 백양로 근처에 식수대/수도가 없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매년 대동제를 치르고 백양로 전체가 주점으로 채워지는 학교이건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백양관 근처 뿐입니다. 대체 다른 장터는 어떻게 하는 거지? 페트병에 들은 생수를 사는 것인가? 생수산업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 하고 그의 대안으로 식수대/텀블러 얘기를 계속 해왔으므로 생수를 산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중도식수대에서 연결을 해 보는 건 어떨까, 물통에다 물을 담아 오는 건 어떨까 – 머리를 쥐어짜다가 한계가 있는 법이다 정 안 되면 생수를 20리터짜리 하나를 사자고 결정했지만 막상 '사서고생'에서는, 식수는 고를샘 정수기에서, 설거지 물은 화장실에서 열심히 물을 퍼다 날랐습니다. 말 그대로 사서 고생이었지요.

사서 고생 한 그 자리

천막 기둥사이에 빨랫줄을 연결하고 농활티, 여성제티, FTA반대티, 송도 저어새티 등을 집게로 걸어 벽면을 만들고 그곳에 의미글들을 붙이고- 바닥은 여성제때 썼던 거대 플랑을 깔고 방석은 총여 행사 때마다 잘 사용하는 ABC 퍼즐매트, 테이블은 총여실에 있는 생리대 박스들로, 아스테이지는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아스테이지로 싸지 말구 파일에 메뉴&의미글 출력한 걸 넣어서 파일 째로 붙이고- 그리고부터 물도 떠 나르고 향긋한 단향이 나는 당근을 깍둑썰기 하다가 포실포실한 찐 감자를 호호 불어먹다가 느타리를 찢다가 푸릇한 양상추 입으로 안 베어도 아삭 소리 나는 걸 손으로 뜯고 오이를 우적우적 씹다가 친구가 오면 앉아서 떠들고 놀기도 하다가 오미자 발효액이 통째 터질까봐 조마조마 하다가 토마토랑 오이도 함께 갈아서 마셔보기도 하고 – 히히힛, 사서고생 사서고생.

9시쯤 '사서고생'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감자와 당근과 버섯, 토마토를 넣고 카레를 끓였습니다. 찾아오신 손님들과 준비한 사람들과 막걸리와 오미자 차, 매실차, 카레, 김치, 뻥튀기 그릇을 올린 소박하지만 풍성한 상에 둘러앉아 먹으면서 생태장터가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5가지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도 평가했습니다. 그 때 밖은 어두웠고 간기능 개선제를 파는 아이들이 소리치고 어디선가 밴드 노랫소리가 시끄럽다 안 시끄럽다 들려오고 사람들은 왁자지껄 이상한 글들이 씌지기도 한 파란색 티를 이렇게 저렇게 입고서 지나가고- 그 안에 의미를 톨톨 뭉쳐놓은 그 공간에서 오늘 하루 일하고도 남은 먹을거리를 함께 일한 사람과 예정 갖고 찾아온 사람들과 나누는데-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할지.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수저와 컵을 켜켜이 쌓아 담고 의미글을 수거하고 옷을 접고 박스에 넣고 바닥에 깐 것을 걷어내고 순식간에 접어지는 천막과 겨우 큰 봉지 하나 나온 쓰레기, 그걸 각자 손에 들고 다시 온 곳으로 돌려보낼 때 -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할지.

너무나도 낯선 거리에서 너랑 나랑은 손 꼭 붙잡고 이렇게 온 정을 맞대어 함께하고 있다고, 외따로 서서 있는 거 같다가도 그럴 수 없게 붙어있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말하던 그 공간, 그걸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생태장터는.

식당자문위원회도 들어가고 있고 그걸 대비한 소모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슬기샘 TFT도 진행되고 있고 맛나샘 앞에 텃밭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코페미니즘 운동 하고 있고 생협 운동 하고 있는데 글을 쓰다 보니 사서고생, 거기에서 한 점 찍힌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뭔가 맘에 한 점 찍은 거겠지요. 2학기에 열릴 '생협학교'에도 결합 할 생각입니다. 그 때도 맘에 또 한 점 남겠지요. 그렇게 그렇게 한 점 한 점 찍어가다 보면 내 맘에 주욱 그어진 한 길이 보이겠지요, 그건 참 멋진 길일 겁니다.

PS. 아래 글들은 5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한 글들입니다. '사서 고생' 때 붙여놓았던 글들이예요.

하나.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가격책정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

2010년도 조합원한마당에서 열리는 생태장터에서는 판매하는 물건들의 가격책정 과정을 공개합니다. 생태장터에서는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뒤풀이 혹은 후일에 소주가 아닌 더 맛있는 술과 안주를 풀어놓고 노는 것을 목표로 하느라 주점/장터 영업 시간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는 우리들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주점/장터를 찾아오는 사람들, 주점에서 일 하는 우리들, 구입한 물건의 생산자분들 등 우리들 사이의 관계들을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먹을거리들이 허공에서 손을 휙휙 저으면 펑 하고 손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쳐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감숙이 깨달을 수 있기 위해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을 공개합니다. 가격 책정 과정을 따라가보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격이 책정되어가는 과정을 하나씩 되새겨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형 마트에서 파는 몇몇 물건들은 그렇게 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도 있고, 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빨리빨리, 많이많이 팔기 위해 잔뜩 버리고 또 버리면서 녹초가 되어가기 보다는 천천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기는 것이 훨씬 즐겁지 않을까요? 안주 맛도 천천히 보고, 부러 나를 찾아와준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더 정답게 대해줄 수 있겠지요. 오월 햇살이 도처에서 이렇게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데, 이 5월이, 깨진 파편마냥 빛나는 햇살이, 짙은 녹색 옷을 입어가는 잎파리들이, 그 햇살을 바라볼 시간도 잊어버린 채로 버나예만 매달려 있기에는 아깝잖아요.
또한 "원가에 이정도 붙이면 이득을 볼 수 있을거야."라고 손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매한 재료들이 화폐로 환산했을 때에는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다시금 짚어보며 그 안에서 잊혀지는 또 다른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매한 재료들이 이곳, 장터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빨리 먹고 나가야 한다는 압박일랑은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가격 책정 과정표도 둘러 보시고, 축전들도 둘러보시고, 먹지 못하는 물건들도 구경해 보시고, 여유롭게 지내다가 가세요-

하나.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보드득보드득 소리를 내기 위한 설거지 핵심인 수세미의 짝꿍은?
① 합성세제 ② 강 물 ③ 철수세미 ④ 살뜨물, 식초물, 효소세제

대부분 ①번을 택하셨을 텐데요, 정답은 ④번 살뜨물, 식초물, 효소세제입니다!

설거지에 사용되는 일명 퐁퐁의 공식적인 명칭은 합성세제입니다. 대개 중성을 나타내므로 중성세제라고도 합니다.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 알킬벤젠설폰산나트륨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합성세제라고 하면 이것을 가리키는 일이 많습니다. 알킬기가 분지(分枝)한 재생 ABS, 노말사슬형의 연생 LAS의 2종이 있는데요. ABS는 폐수 중에서 세균과 같은 것으로 분해되지 않고, 하수처리의 곤란, 강물의 거품일기, 어류 ·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LAS(linear alkylbengenesulfonate)제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수질오염,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지, 한국말인가요, 한국말인가요! 너무 어렵죠! 어려운 만큼 나쁜 합성세제를 우리 조합원 한마당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식초물을 이용해서 보드득, 윤이 나도록 그릇, 젓가락, 숟가락을 씻기로 했어요. 쌀뜨물, 식초물, 효소세제 등은 훌륭한 천연세제고요, 오히려 기름기까지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_^

하나.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조합원 한마당에서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습니다. 일회용품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게 되잖아요. 주점 후에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나무젓가락, 일회용접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들, 다음날 백양로를 가득 메운 쓰레기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시진 않으셨나요.

일회용품의 나쁜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산으로 들로 버려진 쓰레기 썩지도 않은채 산림을 훼손하고 비가 오면 환경호르몬들이 땅으로 스며들어 물이 오염되고 이 물을 우리는 다시 먹게될지도 모르지요. 혹은 물을 정화하는데 엄청난 막대한 비용이!!

우리가 '불편'을 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태를, 내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조금 부지런해져요.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물론 세제를 쓰지 않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햇빛에 그릇, 젓가락, 숟가락들을 말리면서 요녀석들이 광합성하듯이, 우리도 광합성 할거랍니다!

하나. 로컬푸드 직거래와 유기농을 원칙으로 한다. (생산자가 보이는, 착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로컬푸드'는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자가 보이는)가까운 경로를 통해 온 먹거리를 말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이용하면, 먹거리가 수많은 거리를 이동하여 생기는 탄소발생량을 줄여 생태계파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를 통해 여러 유통과정에서 석유에너지 유통경비 같이 낭비되는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생산자와 좀 더 가까워짐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해지고, 그럼으로써 생태계와 농민들이 착취당하지 않는 생산-소비방식을 직접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유럽의 북해에서 잡힌 새우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껍질이 벗겨지고 다시 바다를 건너 유럽의 시장에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이듯이 단순히 이용자가 있는 곳에서 생산지가 가깝다고 해서 로컬푸드는 아닙니다.(이 먹거리는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며 먼 거리를 이동했고, 경제적 약자에 위치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좀 더 올바른 생산-소비의 관계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로컬푸드를 통해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간다면, 이윤을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비자의 건강에 좋지 못한 재배방식이 아니게 될 지도 모릅니다. 또 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규모 회사나 유통업에서 농민에게 낮은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일이 줄어들 수 도 있겠지요. 우리는 먹을거리들을 사고 이용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질문들을 하면서 고민하고 대안적인 생산-소비방식을 조금씩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 가고 싶습니다.

하나. 모두가 함께하는 장터를 지향한다.(손님과 판매자라는 구분을 떠나서 충분히 서로를 신경 쓰고 충분히 서로와 관계 맺을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2010년 조합원한마당에서 열리는 생태장터에는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 모두가 함께하는 장터를 지향한다는 원칙은 장터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분절된 관계를 지양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동제 장터는 대동제이니만큼 이름 그대로 함께 즐기고 의미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종종 우리는 정말 함께 즐기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장터를 계기로 정말 오랜만에 바쁜 시간 쪼개서 선후배가 만나는 자리인데 서로의 핀득한 대화는 잘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배는 터무니없는 가격의 메뉴표 앞에서 '기부'하는 셈 치며 '상품'을 삽니다. 후배는 자치활동비 조금이라도 더 모아볼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저 '손님'이 빨리, 많이 사먹고 잘 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잡다단한 관계가 단순히 돈을 내는 구매자와 서빙하는 판매자로 나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나뉘어 버린 상황에서는 상대의 기복을 신경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기복을 신경 쓴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내기 때문에, 혹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신경 씀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인간관계역시 하나의 상품이며 돈으로 충분히 환산할 수 있다는 생각의 연장선일 것입니다.

대동제 장터는 꼭 판매자와 구매자가 나뉠 필요가 없는 공간입니다. 2010년 조합원 한마당 생태장터는 손님과 판매자라는 구분을 떠나서 충분히 서로를 신경 쓰고 충분히 서로와 관계 맺을 수 있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장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y 음 다 오늘과 내일의 나를 위해서 사서고생 하는거임 나무

한 달간의 교생 실습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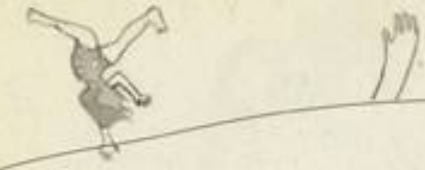
지난 4월, 교생실습을 다녀왔다. 실은 (자리가 비어서)추가 공고가 났던 교직이수를 신청했던 3년 전에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다. 모교에 교생으로 돌아가 학교를 뒤집어 놓으리라… 늘 아이들을 뒤에서 꺼안고, 볼을 한번만 만져 봐도 되겠냐며 물어보던 그 중년의 국어 선생 새끼 앞을 시크하게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아직도 애들한테 볼 만져 봐도 되냐고 그러면서 사세요?"라고 말하고 내 특기인 '무시하면서 비웃어주는 표정'을 짓고 지나가기. "저 학교 다닐 때는 성희롱 교사들이 많았는데, 아직도 있나 모르겠어요. 정말 격 떨어지게 말이죠. 내일 한 번 애들이랑 이런 얘기 나눠보려고요. 오호호"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반응보기 뭐 이런 시나리오들을 상상하며 통쾌해 했다.

'선생님 인문계 나왔어요? 아님 실업계 나왔어요?'

하지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학교라는 불합리하고 무식한 공간에 대한 트라우마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그리고 내가 나온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입시에 포로가 된 학교에서 대학 입시용 사회를 가르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은, 평소 존경하던 사회 선생님이 계시는 여자 실업계 고등학교였다. 내가 담임 반으로 들어가게 된 반은 인터넷 정보과였다. (나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실업계는 과 별로 나눠져 있고, 처음부터 과 별로 뽑기 때문에 입학 컷이 다르다.) 간호조무과, 유아교육과, 디자인과 순서로 입학 퍼센트가 차이난다는 이 학교에서 우리 반, 인터넷 정보과는 전교에서 가장 입학 성적이 낮은 반이었다. 첫 조회에 들어가 떨리는 첫 인사를 한 내게 아이들이 처음으로 던진 말은 '선생님 인문계 나왔어요? 아님 실업계 나왔어요?' 였다. 학생들은 이미 내가 연세대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 인문계를 졸업했다고 말한 내게, "수능 몇 점 받았어요?" 가 질문의 끝이었다. 학생들은 나에 대해 더 이상 관심도 갖지 않았고, 한 1주일간을 나를 경계했다. 한 달이 지나고, 내게 생크림 케익을 뒤집어씌운 굿바이 파티 날 학생들이 건넨 편지에는 "처음에 선생님 무섭고 재수 없을 것 같아서 싫었어요." 라고 쓴 아이가 반절이 넘었다.

'저 선생, 생각보단 재미있는데?'

첫 주의 어색한 공존의 양상은, 내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져갔다. 내가 준비한 수업은 '차별 금지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처음에 입안된 차별금지법 중에서 재계와 보수 기독교 측의 반대에 부딪혀 중간에 빠지게 된 7가지 조항 학력, 가족형태, 출신 국가, 언어, 성적 지향, 병력, 범죄전력에 대해 얘기해주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은 학력과 가족 형태가 빠졌다는 대목에서 유난히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꽤 반응을 보였다. 차별 금지 조항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 금지' 항목이 빠진 것을 이야기 하자, 학생들은 자신들이 실업계라는 이유로 가정과 동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그 실업계 학교 선생님들에게서 가장 많이 무시를 받는 이야기를 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항목이 빠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조각나 있다는 뜻이 담겨있는 편부모라는 단어보다는 한부모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자, 몇몇 학생들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에는 학생들이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교실에 묘한 공감대 같은 것이 스멀스멀 퍼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주먹 쥐고 일어나!'

10대, 여성, 실업계, (주로)가정형편도 좋지 못한 애들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은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벌써 사회의 쓴 맛을 보면서 차별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런 마당에 이렇게 힘 빠지는 차별 금지법 얘기만 하고 수업을 끝낼 순 없었다. 수업은 20분 만에 끝을 내고 나머지는 학생들과 같이 즐거운 몸 훈련을 했다. 중점적으로 한 것은 주먹을 꽉 쥐는 훈련과 욕하기 훈련! 주먹을 꽉 쥐는 훈련은 학생들이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 지를 자각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한 것이었다. 먼저 1단계, 손바닥이 다 보이게끔, 엄지를 뺀 나머지 네 손가락을 최대한 위로 당겨 둘째 마디를 구부리는 것. 그 다음에 그 상태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한 번 더 안쪽으로 접어준다. 셋째, 그 상태로 엄지손가락으로 구부리진 네 손가락 중 둘째 셋째 손가락을 웅골차게 감싸주는 것이다. 그렇게 쥔 주먹으로 다른 손 손바닥을 쳐보라고 하면, 경쾌한 탁- 탁- 소리와 함께 '오우' 하는 탄성들이 나온다. '야, 이거 짱 세!' 막 이러면서 신이 난 모습들이었다.

'욕 안하기'가 아닌 '욕 제대로 하기!'

그 다음에는 '욕 제대로 하기'를 같이 해봤다. 학생들은 욕이 일상이었다. 무슨 욕을 마침표를 사용하는 마냥 말끝마다 붙여댔다. 이 학생들에게 뜻뜻한 교생 티를 팍팍 내면서 "얘들아~ 욕하지마. 욕은 나쁜 거예요." 라고 말하는 순진한 교생이 되고 싶진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욕을 정작 필요할 때 쓰도록 해주고 싶었다. 일단은 욕의 어원들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우리가 지금 주로 쓰는 욕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르는 새에 여성비하적인 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예를 들며 얘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뜻인 거 알면 좀 사용하는 게 꺼려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렇다면야 어차피 내 입 더러워질 거, 아주 시원~하게 아주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고는 욕하기 연습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준 상황들은 우리 반 학생들이 말해준 얘기들을 바탕으로, 실제 학생들이 자주 처하는 상황들로 구성했다. 아르바이트하는데 사장이 자꾸 임금 미루고 안 주고 무시하는 경우, 지하철에서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 등의 상황에서 앞에서 움츠러들고 아무 말 못하기보다는 제대로 포스 있게 욕하는 법을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친구들이랑 욕할 때는 늘 욕을 입에 달고 살지만, 이렇게 큰 소리로 공식적으로 욕을 해본 적이 없던 학생들은 막상 욕하라고 명석을 깔아주니 처음에는 어색해 했지만, 나중에는 제법 크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몸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가면서 욕을 하는 연습을 해나갔다.

'선생님~선생님~저 오늘 한 건 했어요!'

효과는 바로 다음 날 한 한생에게 나타났다. 오전 등굣길에 한 학생이 저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왔다. 등굣길에 어떤 아저씨가 다가와서 "나랑 만나면서 좀 놀아보지 않겠냐" 며 자기에게 찝쩍댔다는 것이다. 실업계 교복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이 나라에 변태 아저씨들이 교복 입은 10대 여학생들에게 늘상 그런 짓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학생들은 이런 것에 종종 노출이 된다고 했다. 그 학생은 내게 배운 것처럼 완전 똑같이는 못했지만 화를 내면서 "아이 쌍, 왜 이러세요" 하고 홱 돌아서 나왔다며 영웅담을 말하듯 떠들어댔다. 얼굴을 빛내며 그 이야기를 하는 학생을 만나니,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씁쓸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이제껏 이런 말 해주는 선생님이 하나 없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쓸데없이 성교육 한답시고, 기독교 교육한답시고 애들한테 낙태금지 동영상 보여줄 시간에 이런 거나 가르치시죠! 라고 학교를 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울컥했다.

나란 여자, 주먹 세게 쥘 수 있는 여자

2차시 수업시연 때 들어가서, '주먹!' 하니까 아이들은 깔깔대면서 배운 대로 주먹을 잡아 보였다. 이렇게 하는 건가? 헷갈려 하는 친구도 있었다. 2차 수업 시연 때는 교과서 진도를 나가고 나서 내 몸의 딱딱한 부분을 찾아보면서 내 팔꿈치와 턱과 무릎과 주먹을 쥐었을 때 손등에 튀어나오는 뼈가 얼마나 강한 무기인지 등을 얘기하고, 그것을 쓰는 연습을 했다. 이렇게 교생실습은 끝이 났다. 겨우 한 달간 함께 했던, 혹은 2번의 수업을 들었던 나를 학생들이 기억할까? 그리고 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 학생들의 삶에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대답은 안타깝게도 NO이다. 그래도 한편으론 학생들의 머릿속과 몸에 언젠가 주먹을 쥐는 법을 배워봤던 기억, 내 팔꿈치가 딱딱하다는 것, 수업시간에 '개새야 어딜 만져?' 라는 욕을 해봤던 기억 정도가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것을 수업 시간에 했던 이유는 그저 아주 조금이라도 '나는야 뚫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다. 단시간에 그녀들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과 사회구조 전부를 바꿀 수는 없으니, 이런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해보는 수밖에. 아무튼 이렇게 나의 무모했던 교생실습 한 달은 끝이 났다. 앞으로 각자의 공간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기만을 바라면서-

by 꿀레미 교생 송이송

한때 나에게 '성차별' 이라는 단어가 마치 사어(死語)처럼 느껴진 때가 있었다. 적어도 내 주변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 6명의 딸을 뒤로 한 채 또 임신을 강요당하거나, 아들은 못 낳고 딸만 줄줄이 낳았다며 구박을 당하거나, 종국에는 씨받이에게 정실의 자리를 뺏기는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20대의 사람들에게는 '아들을 낳아야만 대를 이을 수 있다.' 는 발상들이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만약 당신이 이런 발상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유감이지만 이 글은 당신에게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우리의 할머니 세대, 좀 더 가까이는 우리의 어머니 세대에서는 저런 일들이 '영화' 가 아닌 '현실' 이었다는 사실이 거짓말처럼 느껴진 때가 있었다.

실제로 나에게는 남동생이 한명 있지만, 부모님께서 동생과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동생과 나는 언제나 평등하게 대우를 받았고 '여자라서 안 된다, 남자라서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취집' 이라는 단어는 우리 부모님 사전에 없었기에 나는 남녀차별이란 단어를 느껴볼 틈도 없이 성장했다. 동생과 나는 피아노 학원에 함께 다녔고, 태권도 학원 수업도 같이 들었다. 이처럼 나는 가정 내에서, 또 가정 밖에서도 남녀 차별을 느낄 틈 없이 자랐지만, 막상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알게 모르게, 아니 눈에 두드러지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녀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접 느끼게 되었다. 물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앞으로 경험할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나를 더 슬프게 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한때 신문에서 '알파걸 신드롬' 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계층' 으로 묘사되는 알파걸(Alpha Girl)은 학업, 운동, 리더십 모든 면에 있어서 남성을 능가하는 높은 성취욕과 자신감을 가진 여성을 뜻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넉넉한 수입을 벌어들인다. 이는 미국 하버드대 아동심리학 교수 댄 킨들러의

알파걸이 없는 세 상 을 꿈 꾸 며

2006년 그의 저서 《새로운 여자의 탄생-알파걸》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말이다. 댄 킨들러 교수는 알파걸을 '학업과 운동, 인간관계와 리더십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남성을 능가해 질주하는 여성' 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말로는 일본의 하나코상, 한국의 골드미스 등이 있는데 모두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고, 사회적 지위를 갖춘 능력이 있는 여성들을 이르는 말이다.(이하 위키대백과 참조)

'알파걸 신드롬' 은 기존의 '유리천장' [1]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해석되어왔다. 하지만 나는 '알파걸 신드롬' 이란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제약이라고 말하고 싶다. '알파걸' 은 있는데 왜 '알파 보이' 는 없는 걸까? 보이(boy)들은 그저 보이(boy)이기만 하면 된다. 굳이 알파보이가 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걸(girl)들은 왜 그저 걸(girl)일 수 없을까? 왜 평범한 걸(girl)로 남지 못하고 굳이 알파걸로 평가받기 위해서 경쟁해야하는 걸까?

보이(boy)들의 세상에는 '알파' 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굳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 보이(boy)들은 굳이 알파보이가 될 필요 없이 그저 보이(boy)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걸(girl)들은 알파걸이 되어서만이 그들의 존재를 사회에 알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야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알파' 라는 수식어 없는 걸(girl)들이 그저 보잘것없는 걸(girl)에 불과한 반면, 보이들은 '알파' 라는 수식어에 절박하게 매달릴 이유가 없는 자유로운 존재들이다. 알파걸이 되기 위해서 걸(girl)들은 치열한 내부 경쟁을 거쳐야 하고, 결국 알파걸이 되기 위한 과정은 그녀들의 동료인 걸(girl)들을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알파걸이란 걸(girl)들 내부의 경쟁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평범한 것만으로는 '알파걸' 이 될 수 없다. 알파걸이 되기 위해서 당신은 공부도 잘해야 하고, 동아리 회장을 맡아야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해야 하며,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도 열심히 해야 하며, 악기도 하나쯤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마치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을 고스란히 복사해온 것이 알파걸의 진실이다.

반면 보이(boy)들은 굳이 알파보이가 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보이(boy)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존재할 뿐, 굳이 알파보이와 비알파보이로 나뉘어질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1]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 막는 회사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말로, 여성 직장인들의 승진의 최상한선,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말한다. 미국의 유력 경제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970년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그리고 이 때를 전후해 미국 정부는 유리천장 위원회(Glass Ceiling Commission)를 결성해 여성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독려하였다. (출처 네이버 용어사전)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알파걸에 대한 당신의 부정적인 견해는 알파걸이 되기 위한 자질이 부족한 당신의 피해의식과 박탈감에서 비롯된 편협한 사고에 불과하다고, 그저 알파걸이 되기엔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루저의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말이다. 당신과는 달리 나는 능력과 재능도 있고, 또 성실하게 노력하게 있으니 충분히 알파걸이 될 자격이 있으며, 조만간 알파걸이 될 것이 분명하니 '알파걸' 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이 정말 알파걸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할만한 사람이라면 '알파' 걸이란 수식어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만약 당신의 주장대로 당신이 알파걸이 되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여 마침내 알파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축하한다! 당신은 당신의 여성 동료들을 하나씩 제치고 종국에는 '알파걸' 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브라바(Brava)! 당신은 이제 일반 걸과는 차원이 다른 '알파걸' 이 되었다.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을 찬양할 것이고 이제 당신에게는 성공만 남은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경쟁은 정말 끝난 걸까? 치열한 '알파 타이틀 획득전' 에서 우승한 당신에게 남은 건 보이들과의 또 다른 경쟁일 뿐이다. 이미 당신이 걸(girl)들 사이의 전쟁을 통해 '알파' 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는 사실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건 그저 예선에 불과하고 보이(boy)들과의 경쟁이 본선이다.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보이(boy)들의 리그에는 예선이 없는데, 걸(girl)들의 리그에만 예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걸(girl)들은 알파걸이 되고나서야 비로소 보이(boy)들과 경쟁할 자격을 획득한다. 알파걸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나서도 알파보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boy)와 경쟁하게 된다.

책의 저자는 '알파걸' 이라는 단어를 통해 능력 있는 여성들이 남성을 능가하여 세상의 주도권을 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오히려 나는 알파걸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보다는, 그저 알파걸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알파걸이 되기를 요구하기 보다는 그냥 걸(girl)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존중받는 세상 말이다. 보이(boy)들이 굳이 알파 보이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보이(boy)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인 것처럼, 걸(girl)들이 자신을 다른 걸(girl)들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성이 없는, 알파걸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뤄진 사회가 아닐까?

by 겁이 많아서 슬픈 짐승 **범**

1차 매체 나온 뒤부터

스피어욧 은 이러저러하게 살았습니다

4월 13일 **생협 이사회**에 참여하였습니다.

4월 15~16일 양일간 **식당자문위원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식당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모임 또한 진행 중 입니다. 우리들은 학생식당의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생협의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생협이기에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 식당자문위원회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슬기샘 TFT(Task Force Team)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에서 슬기샘 개선 관련 설문지를 만드는 것에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슬기샘 TFT 연석회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자치활동을 위한 백서 **'생태장터로 초대하는 우리의 손짓-2010 생태장터백서'**를 각 단위에 배포하였습니다. 학내에서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되풀이되고는 하는 대동제 기간 각 단위들의 구조적 문제제기와 함께 새로운 자치활동을 꿈꾸는 단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0 에코페미니즘팀에서 만들었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총여학생회실 앞 선반에도 비치해 놓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5월 11일~5월 13일 총여학생회 생협국, 학생복지위원회, 총학생회 생협국과 함께 **'2010 조합원 한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생협이기에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2010년도 조합원 한마당에서는 슬기샘 북크로싱 행사, 팀 블러와 아메리카노, 내일아트 경연대회 등 생협이기에 학내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생협학교'를 준비 중이랍니다. ^^^^

5월 12일 총여학생회 생협국, 학생복지위원회, 총학생회 생협국과 함께 **'2010 생태장터 사서고생'**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 생산자가 직접 만든 두부와 막걸리, 뻥튀기 점시와 함께하였던 생태장터는 '이윤을 남기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회용품과 세제를 쓰지 않는다, 모두가 함께 하는 장터를 지향한다, 로컬푸드 직거래와 유기농을 원칙으로 한다'를 기조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즐거운 가능성을 꿈꾸는 '사서고생'들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와 함께 **"만일 내가 임신을 한다면?" 영화제**를 5월 18일~19일 양일간 진행하였습니다. 18일에는 〈더 월〉을 상영하였고 19일에는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을 상영하였습니다. 프로라이프의사회의 고발조치 이후 다양한 여성 주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참가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탈!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 '퀴어의 움직이는 성'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3일간의 전시 및 자료집 배포와 함께 27일에는 영화 '프리헬드'를 상영하였고 28일에는 루인씨의 강연 '퀴어를 중심으로 중심을 퀴어화 하기: 규범이라는 불안'을 진행하였습니다.

27일 밤~28일 오전 사이에는 **테러를 당했습니다.** 많은 전시물이 훼손되었고, 현재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 자보를 통하여 입장글을 발표하고 연장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몸 바꾸기 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모여 복작복작 일을 벌이는 모임인데요, 참가신청은 메일 speak-out@yonsei.ac.kr로 받고 있답니다. 자신의 몸을 새로이 바라보고 대화하여 함께 해나가는 작업에 함께하고 싶으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여학생휴게실 개선 팀 활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여성주의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살짝 막막했던 분들, 여성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건고한 가부장제의 벽에 답답했던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메일 speak-out@yonsei.ac.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여성주의 활동을 해 오신 선생님들의 강연과 세미나가 함께 진행 될 예정입니다.

2010 여성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내에서 여성주의의 목소리가 가득 가득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여성제!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공과대학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 개인의 인성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미화/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폭언/폭행을 문제 삼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몸 바꾸기팀에 함께해요!

우리는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여성의 몸에 대한 서술을 아주 쉽게 접합니다. 책을 뒤적이며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아도, 아니 별로 보고 싶지 않을지라도 날마다 눈앞에 들이대어 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술과 이미지들은 옷 입고 밥 먹고 걷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좀체 떠나지를 않습니다. 당장 유행하는 옷을 입으려면 그러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밥 한 공기를 비울 때도 무심결에 칼로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 이만큼 먹었으니 운동이라도 좀 해야 하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얼굴이 부어 보이는 날이면 거리를 걸어가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다보니 틈틈히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배가 나오거나 다리가 굵어 보이지는 않나 싶어서요.

하지만 거울 속의 나의 모습은 아름답다고 칭송받는 여성의 몸과는 다릅니다. 평소에 내가 나의 몸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떠올려봅시다. 나의 몸이 한 사람의 몸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성의 몸에 대한 기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몸이 있습니다. 고로 나는 상대적으로 뚱뚱하거나 상대적으로 너무 마른 몸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나의 몸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못난 몸이 되어버리니,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면 멋지고 완벽한 몸이 될 수 있는 걸까 라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네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재현되고 소비되는 여성의 몸은 하나의 규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런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규범 말입니다. 심지어 "그런 몸이 아니라면 너는 너를 관리하지 않았으니 잘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젊고 건강하며 성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여성의 몸, 사회는 이것만이 정상적인 여성의 몸이라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몸은 각자의 경험 속에서 다르게 형성되는 법입니다. 너의 몸은 이렇고 저렇다, 라고 규정하는 획일적인 기준들과 옹어리진 강박관념을 몰아내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몸을 바라보고 말을 걸어 봐요. 왜냐하면 나의 몸은 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은 살아 움직이고, 나이를 먹으며 변화합니다. 매일매일의 관계와 경험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며 변화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나의 몸을 일상의 차원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다른 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고민들을 담아서, 몸바꾸기 팀 활동을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활동들이 가능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가부장제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성/별정체성에 따라 요구되는 몸을 벗어나 볼까나?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니, 고로 비정상이다' 라고 치부되는 히스테리와 우울 등 몸의 언어를 깊이 들여다보는 건 어때? 단지 멋지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옷들과 몸의 자세들, 행동들을 다시 불러들여 나의 욕망에 물을 주자. 이처럼 몸을 매개로 다른 존재와 다른 욕망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실험하는 것이 몸바꾸기 팀에서 해보고 싶은 주제들 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에서 기대하는 몸을 탈피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권력관계란 요구되는 규범에 따라 각 개인들이 행동함으로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신한 여성의 몸가짐에서 탈피한다는 것은 성별권력관계와 여기에서 파생하는 폭력을 전복하는 적극적인 함의를 가집니다. 이처럼 나의 몸으로 손끝으로 눈짓으로 경계를 우당탕쿵탕 뒤흔들어 봐요. 내가 매일매일 점점 더 좋아지고, 내 몸을 긍정할 수 있게 되기까지 말입니다.

함께 하고픈 분들은
speak-out@yonsei.ac.kr로 메일 주시거나
학생회관 3층 왼쪽 끝 분홍색 문 총여학생회실로 찾아오셔요!

페미너리 책 읽고 서평을 보내주세요!

여성학 자치 도서관 페미너리는 학생회관 3층 왼쪽 끝 분홍색 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분홍색 문을 똑똑 두드리고 '페미너리 사용하러 왔어요' 한 마디면
방해받지 않은 채 학내 여성주의자들이 읽고 싶고, 느끼고 싶어 차곡차곡 모아온
여성주의 서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는 뭘까?' 라는 소소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여성주의 입문서에서부터,
주체로서의 여성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에세이와 여성의 시각에서 서술된 소설책들,
그동안 담론으로 구성되지 않던 여성의 몸, 여성적인 것, 여성의 사고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나의 관계맺음을 세밀하게 성찰하는 여성주의의
작은 목소리에 공감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고방식을 뒤집어보고 해체해내며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성 주의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자연을 비롯한 모든 이와의 관계성을 고민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 이 많은 이야기들이 페미너리의 책 한 권 한 권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책꽃이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편안한 독서의자에 앉아 책을 읽을 수도,
대여목록에 도서명을 적고 2주간 빌려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긴긴 시간동안 페미너리와 함께
많은 기억과 관계를 만들어왔습니다. 아직 페미너리를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페미너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페미너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주의 책을 골라 읽고 난 후,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낸 서평을 speak-out@yonsei.ac.kr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서평은 다음 매체에 실리게 됩니다. 글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총여학생회에서 제작한 예쁜 텀블러를 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기

yuki kohuna

삶 깊은 숲만 같은 그리움 속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꿈만 같은 도피 속에서 지내고만 싶었다. 끝이 안날 것만 같은 정리와 분석과 고민으로 가득찬 한 학기가 지나간다. 여전히 당황한 채로 살을 맞이한다.

율 다 차려진 밥상에 수저하나 올린 후기를 쓰게 되었네요. 이번엔 그렇게 되어서 참 쑥쓰럽습니다. (~//~) 그렇습니다만 영우조개2호는 대박인것 같아요! (*ㅠ*)

기린 학기말의 학부생이 으레 그렇듯 나는 무기력과 체력고갈에 시달립니다. 팀프로젝트와 발표와 과제의 쓰나미에 휩쓸려갑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파란 하늘을 훨훨 나는 영우조개이. 나를 구해줘.

매체 마감이 다가오던 어느 날 누군가의 꿈 하늘의 잘반은 토마토 비가 내리고 저 아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가 흔들 흔들거려. 오른쪽밑에입니랑 오른쪽아랫쪽송곳니랑 위쪽에오른쪽작은어금니랑- 심지어 잇몸까지 시커매졌어. 이 조각이 목에 걸려서 켁켁 거리니까 이가 다 쏟아져 내려서…… 손바닥으로 받쳤어. 옆에 사람이 당연히 꿈이니까 그렇지 그 사람 진짜 누굴까? 그래서 난 이를 버렸니? 상어처럼 이가 새로 났어. 언 옛날에 이같이를 하던 느낌. 더 웃긴 건 가만히 뇌두면 이가 볼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

별 자정이 가까워지는 무렵의 한강은 정말로 비현실적이다. 이가 빠지는 누군가의 꿈에 나는 잇몸 형태로 이가 빠지는 꿈을 꿔 버렸다. 난 그 덩어리를 가방 속 지퍼가 달린 작은 주머니에 넣었고, 가방을 기울일 때마다 언뜻 언뜻 그것이 보였다. 꿈에 강물이 자주 범람한다. 아침 일찍부터 강이 나를 부른다. 하루 24시간 강 주위를 배회하는 사람들의 행렬.

나무 경험을 글로 기록한 것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말 너무 할 말이 많아서 타자를 치는 것조차 귀찮다하여 중구난방 색색의 경험이 이리저리 잘 끼워 맞춰진 단색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다가 또 기다듬어진 것이 통, 하고 내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면 그것이 또 다른 형형색색을 내기도 하고- 교집합 부위가 다를 다르겠지만 같이 그 경험을 한 사람도 내 글을 볼 때 그 신비한 힘을 느낄까?

가온 한 순간 한 마디의 말 걸기가 관계를 만들어내었던 아름다운 기적들을 따올리며.

앵무조개 네트워크
탄생설화
이제 제목을
뭐로 할까...
제목 월간낚시
커버스토리
만선!!
제목
재떨이의 반란
커버스토리
넘칠까봐
두려워요!!
우하하
우리 제목이랑
표지 정말
잘 뽑았다!!

얼마후
근데...
앵무조개가
뭐야?
맙소사
뭐? 앵무조개가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고???
크기도
되게
작은게
사실이야?
앵무조개
그렇지 않아
우리의
마음속에서...